

#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Consequences

延 珍 泳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 1 장 문제의 제기

한국인은 대부분 “이혼 가정이 많은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어린이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산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어린이들 중 아직도 많은 수가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구나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로 이들 피학대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선일보 1991.4.2).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시각의 전환과 아동 복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고발센터가 발족되는 등,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 문제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내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녀관에 의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해 별반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는, 아동학대는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개인적인 문제요, 자칫 은폐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의 통계 숫자를 넘어서 한 아동이라도 심한 구타에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은 가정 밖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커서는 폭력자가 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은 아동학대의 문제가 공통의 관심을 갖고 연구,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준다.

한편 학대의 결과 또한 매우 심각하다. 학대당한 아동들은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자아개념이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퇴행하여 장차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많은 학자들이(Hilberman, E. & Munson, K., 1978; Hoffman-plotkin & Twenty man, 1984; 김정준, 1987; 권지영, 1991)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이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도둑질,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Johnson과 Morse(1968) 및 Green (1978)등은 학대받은 아동의 전형적 행동 특징으로 과잉활동증, 충동적 성질, 인내심의 결핍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곧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 누적된다면 그 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의 중심지이며 인격형성의 근본인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주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이외에 학교·사회 조직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아마도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정상가정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의 실태와 그 영향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내원아동, 가출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보호소에 수용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기를 회상해서 학대 상황을 파악한 연구거나, 피조사자가 이미 문제아로서 취급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문제를 나타내지 않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대현황 및 가정환경을 살펴보고, 가정에서의 이러한 잠재적 요인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좀 더 일반적이고 긴 안목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도둑질이나 폭력, 가출등 문제 행동은 유아기부터 이미 그 원인이 잠재해 있으며 이것이 누적, 반복됨으로써 문제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생각할 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장기적으로 문제 아동을 위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구체적 자료제시 및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제 1 절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아동학대의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학대의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학대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사용되어 왔으며, 시대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학대의 기준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Garbarino(1989)는 아동학대를 정의하려면 문화적으로 용인된 아동 양육의 규범을 알아야 하고, 그 지역사회의 기준과 전문적 지식의 양자에 조건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대의 발생율이나 연구결과의 비교, 학대의 예방 및 치료대책의 수립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연구자들의 합의된 개념 정의를 내리는 일은 필요하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학대의 개념 정의에서 논점이 되어왔던 몇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첫째 아동학대를 광의로 해석할 것인지 협의로 볼 것인지의 문제, 곧 가정내의 학대에만 국한시킬 것인가, 가정밖에까지 확대시킬 것인가. 이는 또한 학대를 개인차원으로만 볼 것인지 사회나 제도상의 문제로 확대시킬 것인지와도 관련된다. 둘째로는 부모의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를 중시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동기를 중시한다면 별의 어느 수준까지를 교육적 동기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학대 행동의 강도나 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혹은 빈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이다. 이 문제는 아동이 단 한번의 잔인한 신체적학대에 의해 상처받는가 혹은 계속되는 조롱이나 경미한 구타에 의해 상처받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로 명백한 폭력이 아닌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교묘한 형태의 언어적 모욕이나 부모의 정신병리적인 무관심을 아동학대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가와 무관심이나 방임의 어느 정도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아동양육의 한 방법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야만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분명해지고, 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고 위에 열거한 몇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고찰한 후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 하면 단순히 신체적학대에 국한시켜 사용해 왔으나 1960년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개념의 폭이 계속 확대되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미국내의 국가단체인 NSPCC에서는 10여년전부터 신체적학대에 태만과 정서적학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1964년 Fontana는 부당한 아동취급이라는 개념에 정서박탈, 태만, 영양부족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를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극단으로 보았다. Gil(1979)은 아동을 파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도적·비우연적 힘의 사용을 아동학대라 정의하였고, 다시 1981년에는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의 조건 및 개인, 제도, 사회의 그러한 행위나 태만을 아동학대로 규정하였다. 이는 학대를 가정내의 학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제도로까지 학대자의 범위를 넓혔으며, 학대 행위도 아동의 인권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 경제 조건을 포함시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Gil의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부모의 매까지도 학대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많은 학자들은 이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신영화(1986)는 학대를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로 봄으로써 역시 아동의 모든 발달을 중시하여 학대행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았다. 이소희(1990)

는 생태학적 접근에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주변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함으로써 학대의 주체를 개인에서 환경체계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들 정의는 아동의 적절한 발달의 한계나 저해하는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다소 모호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감이 없지 않다. Alvy(1975)도 이와 비슷하게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아동학대를 모호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보다는 학대의 영역을 세분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내린 학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Halperin(1979)은 부적절한 아동양육을 ①신체적 학대 ②성적 학대 ③신체적 태만, 의료적 태만 ④정서적 학대 ⑤정서적 태만 ⑥교육적 태만, 유기 ⑦복합적 영역의 9가지로 세분해서 아동학대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Burgess와 Conger(1978)의 정의를 보면,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행해진 행동의 결과로, 의도적인 신체적·심리적 상해를 가졌은 것이라고 아동 학대를 정의함으로써 학대의 개념에 가해자의 의도를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연령 범위를 지정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은 대체로 아동 발달의 모든 영역을 학대행위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부모나 보호자의 광범위한 부적절한 양육 행위를 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부모의 구타 행위는 물론이요, 부모로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무관심한 것, 다시 말해서 거부·방임까지도 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협의의 시각을 갖는 학자들은 주로 신체적 구타에 국한시켜 정의를 내린다. 이들 중 Giovannoni(1971)는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학대는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인 반면, 방임은 양육태만으로 아동에게 소홀히 하는 것 즉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Straker와 Jacobson(1981)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져서 골절,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의 신체적 상해를 아동이 반복 경험할 때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학대의 빈도, 구체적 상해의 정도를 명시한 것으로 매우 유용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나 지나치게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시킨 감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신체적학대에 국한시킬 경우, 연구의 필요에 의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가 쉽고, 학대의 기준과 규정이 보다 용이하고 의학적 검증에 의존할 수 있으며, 사후 처리시 법적 개입을 추구하는 데는 유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주영희, 1984).

더욱 협의의 정의로는 Kempe와 Helfer(1980)의 아동학대 정의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학대를 받은 아동을 “난타당한 아동(Battered Child)”이라고 불렀으며, 아동학대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태만 행위의 결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 하여, 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국한시키되 의도성과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의도성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해를 끼칠 목적을 가지고 학대를 했다는 의미이므로 학대가 대부분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의도적인 경우만을 학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도성 여부는 밝힐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대 여부의 판단에 객관성이 결여될 염려가 있고, 또한 대부분의 학대 사례에서 부모가 자녀를 해치는 행위가 무의식적 행위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신영화, 1986).

이외에 기준이나 평가를 중시하는 정의로서, 아동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준을 침범한 부모나 보호자의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다(Giovannoni & Becerra, 1979).

이렇듯 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대의 기준이 학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된 공통된 정의를 내리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최근 고성혜(1992)는 학대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여 주목을

끝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아동의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합의된 아동학대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는 행위자의 의도나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될 수 없어도 주양육자의 행동결과 아동이 분명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얻게 될 때 그것을 아동학대로 간주하며 아동이 받는 상처가 분명하지 않아도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모의 행동 자체를 아동학대로 본다.

이 정의는 가정내의 학대, 부모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 점 등 지금까지의 학대 정의의 논쟁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중도적 입장의 정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방임이 학대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는데 부모의 방임이나 무관심이 누적되면 역시 아동에게 심리적 손상 및 발달상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동학대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것으로 신체적 상해 이외의 행위라도 아동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학대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성혜의 학대의 정의에 방임을 포함시켜서 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가정내의 학대에 국한시키되 부모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동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상해를 줄 수 있는 부모의 모든 구타행위, 방임, 언어적폭력을 아동학대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아동이 어느 정도로 상처를 입을 때 학대인가, 얼마나 자주 때릴 때 학대인가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적학대는 신체적학대의 일종으로 명백한 학대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본 연구의 학대는 주로 가정내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를 다루고 있고 둘째로, 성적학대 문제는 피조사자의 수치심과 미묘한 감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진실의 은폐가 다른 학

대문제보다 더 심하리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질문지로서는 성적학대를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제 2 절 아동학대와 관련변인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에서는 1960년 이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서 나온 연구들이 몇편 있을 뿐 아직 연구가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요인을 포괄적으로 취급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관련변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이 중 사회·심리적 접근에서는 가정의 여러 특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 및 문화적 여러 측면이 아동학대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실업, 무직,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들고 있다(Gil, 1971).

정신병리학적 접근을 지지하는 Kempe와 Helfer(1972)등은 부모의 정서상태, 과거의 경력, 성격 등을 중요한 변인으로 들고 있고, Gil(1970)은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취업 유무, 양육 경험 등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 사회체계적 접근에서는 광범위한 사회 환경을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아동학대는 아동, 부모, 가족, 환경의 다요인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의 학대에 국한시킨 개념 정의에 따라 가정 환경과 부모의 특성을 아동학대의 주요 관련변인으로 보고, 아동 자신의 특성인 성별, 연령 등과 함께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아동의 성별

American Humane Association(1985)의 신체적으로 상해를 받은 아동의 통계에 의하면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자 아이일수록 학대를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99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또한 Gil(1971)은 학동기 때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유순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적이기 때문에 신체적학대의 대상으로 남아가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12살 이하의 경우 어느 연령층이나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많았다고 보고하였다(Gil, 1979). 그러나 청소년층이 되면 여아는 데이트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통제와 힘의 사용이 늘어나서 여아가 오히려 학대받는 경우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아는 육체적인 힘이 부모와 대등해지기 때문에 신체적학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안동현, 홍강의(1987)의 연구에서도 손상의 정도에 관계없이 남녀의 비율이 3:1로 남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김광일, 고복자(1987), 신영화(1986), 이소희(1990)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남아가 더 신체적학대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받는 아동의 성별에 대하여 일관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조사대상 아동이 어느 발달단계에 있는가 또 학대의 종류와 기준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아존중사상이 우세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모순된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즉 남아를 보호하고 우대하는 면으로 볼 때는 여아가 상대적으로 더 학대를 받을 수도 있으나 남아답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남아를 여아보다 심하게 다룰 경우 오히려 남아가 신체적학대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학대 영역에 걸쳐 아동의 성별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 2. 아동의 연령

피학대 아동의 연령 분포는 모든 인종집단에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만 2세 이상의 아동이 75%를 차지하였고 그 중 반 이상이 6살 이상이고, 약 1/3이 10대였다(Gil, 1979). 피학대 아동의 연령 범위를 가장 넓게 0세에서 15세까지를 연구한 안동현 등(1987)의 연구를 보면, 손상이 심한 경우는 피학대 아동의 평균 연령이 4.9세, 경한 경우가 7.3세로 어릴수록 학대에 의한 심한 손상을 나타내어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손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심한 손상의 경우는 특히 1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il(1979)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3살 이하의 경우 치명적 학대에 의한 손상 비율이 높았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광일, 고복자(1987)의 연구에서는 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traus등(1979)은 3,4세와 5-9세 아동의 83%, 10-14세 아동의 66%가 부모로부터 한해동안 매를 맞았다고 보고하였고, A.H.A(1985)에 의한 통계는 피학대아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나타남으로써 연구에 따라 피학대아의 연령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신영화의 연구에서는 11-14세, 고성혜의 연구는 4, 6학년, 김혜영의 연구는 11-14세, 김정준은 유아를 대상으로, 안동현 등은 15세 이하, 소속희는 3학년, 이소희는 5학년 등, 연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연구내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알 수 있으나, 전 연령층에 걸쳐 어느 연령층이 가장 학대를 많이 받는가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아동학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대의 종류에 따라서도 연령 분포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나 기타 주위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에 따라서는 아이를 기를 준비가 안되어 있든가 좋은 부모 노릇을 하기에는 생활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 자신이 학대를 유발한다기 보다는 부모의 정신 병리적 문제나 신생아기의 애착형성의 실패 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0대의 어머니들이 나이든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학대한다고 보고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아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체벌이나 훈육에 의한 학대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사회에서의 체벌의 개념이나 한계, 폭력의 수용 분위기 등이 아동학대의 연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상으로 아동기에 속한 3학년 아동과 청소년 초기에 들어섰다고 보이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의 아동은 체격도 크고 부모의 물리적인 힘에도 대항할 능력이 있는 반면, 3학년 아동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여지가 더 클 것이라고 여겨져서 두 집단을 택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977-1984년 사이에 NSPCC에 등록된 피학대아의 가정환경을 보면, 부모의 불화, 실업 그리고 빛의 3가지가 가장 빈번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대개 가난하고 빈곤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실제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학대 부모의 내적인 스트레스는 비슷하다는 보고가 있다(Ruth & Kempe, 1978).

아동학대는 중류계층보다 하류계층에서 더 많으며 10대의 어머니들이 나이든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ssen et al., 1984).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실태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고(Gil, 1971, 1979; 주영희, 1984; 신영화, 1986; 김혜영, 1989), 빈곤하며(김정준, 1986; 김광일 등, 1987), 특히 아버지가 실직인 경우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Cater & Easton, 1980; 김광일 등, 1987).

Goode(1971)가 말한 바와 같이 개인에게 유용한 자원이 많을수록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부의 실업은 아동학대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폭력을 통한 권위를 주장하도록 하며, 실업에 의한 좌절감은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Madge, 1983).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직업 및 실업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부부의 불화 및 가정의 분위기

지속적인 학대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전체적 분위기나 가족의 가치관 등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적다. 소숙희(1986), 고성혜(199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부부간의 갈등, 불화(이영숙, 1984; 소숙희, 1986; 고성혜, 1992), 결혼의 불만족(황영희, 1983; 고성혜, 1989)등은 아동학대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정폭력은 자녀 구타를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폭력을 수용하는 가정에서 자녀 구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아내 구타에 수반하여 자녀 구타가 병행되거나(주영희, 1984; 김광일, 1985; 신영화, 1986), 화풀이로 자녀를 구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 결손가정, 계부·계모인 경우에 아동학대가 더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Gil, 1979; 주영희, 1985; 신영화, 1986; 김광일, 1987; 유춘식, 1988).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나 부부의 폭력 사용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가정내의 아동학대 잠재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 제 3 절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학대는 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적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학대받은 아동의 후유증이나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히 타박상이나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며 반복 구타는 정신, 신체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Gay ford, 1975; 김광일, 1985). 더우기 구타당한 아동이 성장하여 폭력 구사자가 되거나 가정 및 사회 폭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영향을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발달상에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체·건강상의 문제

학대받은 아동은 키와 몸무게가 적은 경우가 많았으며, 영양상태가 불량하고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영희(1985)는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검사를 통해 이들의 신장·체중이 정상아에 비해 다소 낮았고, 빈혈·영양불량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건강문제는 학대 이전에 발생하여 부모의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학대아동은 출생시 몸무게가 적거나 신경학적인 비정상 등이 정상아동 집단에 비해 더욱 빈번하였으며, 어릴 때 더 많이 아팠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신체적 미숙은 특히 아직 부모될 준비가 덜 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신체·건강 장애는 특히 여아들에게 많은데 주로 두통, 복통, 천식, 류머티즘 등의 증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김광일 등(1987)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심하게 학대받은 아동집단은 머리가 아프다, 팔 다리가 쭈신다, 숨이 차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입맛이 없다, 정신이 가물거리거나 흐리다, 배가 아프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회초리나 혁대로 맞은 자국이나, 끓는 물, 담배불 등에 의한 화상 등이 있으며, 탈골이나 골절상을 입고 있었다(김정준, 1986).

학대가 신체 건강상에 주는 영향은 학대가 발생한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낮은 연령일수록 신체적 손상이 더 심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Gil, 1979; Creighton, 1987; 안동현 등, 1987).

## 2. 정신, 운동 발달상의 문제

피학대 아동의 70%가 발달상의 문제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들은 매우 다루기가 어렵고 부산스럽고 요구가 많고 언어발달이 지체된 경우가 많았다(Johnson & Morge, 1968). Applebaum(1977)에 의하면, 15개월 되는 유아를 정상아동집단과 학대아동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학대아동집단의 운동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남을 발견하였으며, IQ는 무려 31점이나 낮았다고 하였고, Gil(1979)에 의하면, 피학대아는 지진아 학급에 수용되거나 자기의 나이보다 낮은 수준의 학년에 취학하는 경우가 학령기 아동의 13%나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Morgan(1979)은 6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피학대아와 정상아동집단을 비교 연구한 결과 피학대

아동이 언어 능력에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피학대 아동은 IQ가 대체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나 IQ가 낮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성적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의 중요한 매개변인인 언어능력의 지체로 인한 결과이거나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 야노증, 공격성, 불순종 등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Brown & Saki, 1987).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은 IQ가 평균 9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주영희, 1985). 또한 많은 학대아동이 읽기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Oates와 그의 동료들(1979)은 방임 아동의 연구를 통해 그들이 언어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집에서의 적절한 언어자극이 부족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3. 정서적인 문제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다.

피학대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인성 특성은 없으며, 이들이 보이는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부모의 타입, 학대가 일어났을 때가 어느 발달 단계였는가, 아동 자신이 가진 특성, 혹은 학대자가 누구인가 등에 의해 다르게 형성되리라고 본다. 많은 연구들은 피학대 아동이 보통 이상으로 과격하고, 자아개념이 낮으며, 신뢰심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나쁘며, 비정상적 애착의 태도를 보인다는데 동의한다(Rolson, 1971; Baher, 1976; Kent, 1976; Martin, 1976; Green, 1978). Green(1978)에 의하면 공격성은 때에 따라 밖으로 또는 내면으로 향하는데 공격성의 한 형태로서 자기학대증상 역시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유아들 중에서도 학대받은 유아인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에게 직접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이 보고

되었고, 놀이시간에 공상적·신체적 공격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Reidy, 1979).

Kinard(1980)는 30명의 학대받은 아동과 정상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 발달의 5가지 면, 즉 자아개념, 공격성, 사회화, 타인과의 신뢰성 발달, 어머니와의 분리 등에서 두 집단간의 심각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 연구한 Wolfe와 Mosk(1983)는 공격성, 우울, 의기소침, 과잉활동증 등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외에 학대받은 아동이 더 공격적이며 냉담하고 덜 순종적이라고 보고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Burgess & Conger, 1977; Straker & Jacobson, 1981; Waterman & Martin, 1981; Trichett & Kuczynski, 1986).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를 보면, 김정준(1986)은 학대받은 아동의 86%가 주의가 산만하고, 75%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60%이상이 파괴적·반항적이고, 48%가 잘 웃지않고 위축되며 수동적이고, 또한 48.3%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권지영(1991)은 가출·미아·부랑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학대가 심할수록 공격성, 사회적 위축, 정서 불안, 강박, 우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상의 문제점 외에도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아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학습부진아로서 공부하기 싫다, 친구와 사귀기 싫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광일 등, 1987). 또 하나의 중요한 학대의 결과는 이들이 장차 커서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커서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는 점이다(Belsky,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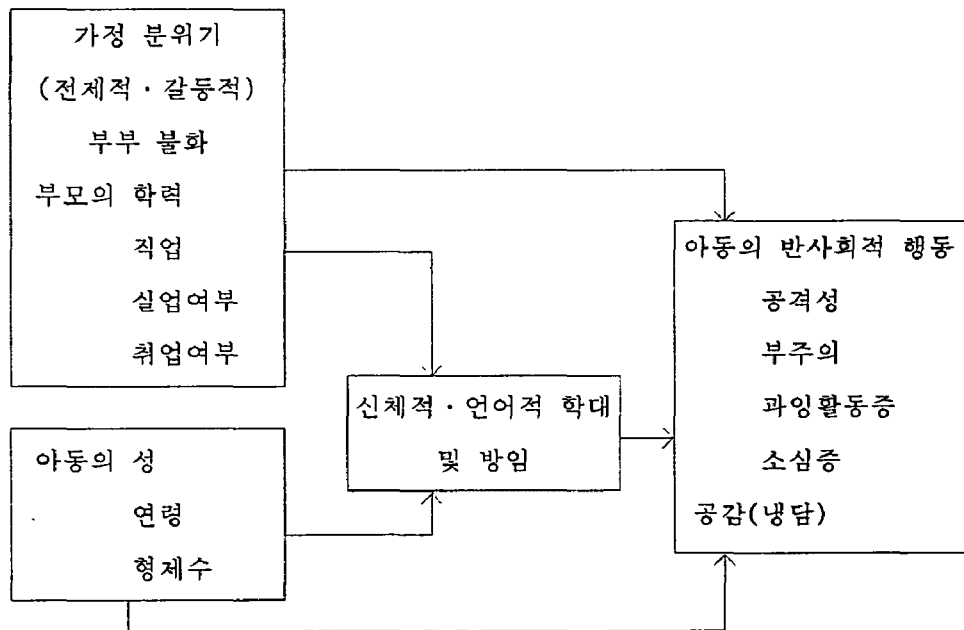
위에 언급한 사실들로 보아 학대받은 아동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학대의 결과들은 학대받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누적된 구타나 방임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는

더 나아가 사회 폭력,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문제점을 제외하고 비교적 측정이 가능하며,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반사회적 행동 중 아동기의 공격성과 과잉활동증, 부주의, 소심증 등의 특성이 학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제 4 절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연구문제 1) 아동학대의 전반적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는 관련변인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형제수,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 부부의 불화 및 가정 분위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또한 아동학대와 가장 관련이 큰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는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학대와 관련변인(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형제수,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 부부의 불화 및 가정 분위기 등) 및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가장 관련이 큰 변인은 무엇인가.

##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절차와 연구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된 측정도구의 제작,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의 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훈육적 차원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Straus, 1979; Steimnetz, 1987) 학령기 아동을 일차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눈 뒤, 저학년의 경우에는 1, 2학년 아동의 응답능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3학년을 선정하였고, 고학년의 경우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1-1〉 연구대상아동의 학교별 분포

| 지 역     | 학 교 명     | 인원(명) |
|---------|-----------|-------|
| 관 악 구   | A 국 민 학 교 | 130   |
| 서 대 문 구 | B 국 민 학 교 | 212   |
| 도 봉 구   | C 국 민 학 교 | 177   |
| 중 구     | D 국 민 학 교 | 163   |
| 서 초 구   | E 국 민 학 교 | 201   |
| 동 대 문 구 | F 국 민 학 교 | 95    |
| 합 계     |           | 978   |

본 연구에서는 편중된 표본을 피하고 고른 분포의 표본을 얻기 위해 서울 시내를 여섯개의 구획으로 크게 갈라 그 중 각각 한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여섯개 국민학교에 106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87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97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학교별 분포는 <표 3-1-1>과 같다.

## 제 2 절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4부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제1부는 가정 환경에 해당하는 가정분위기와 부부화합도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며, 제2부는 가정의 인적 환경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제3부는 아동학대에 관한 문항으로, 마지막 4부는 공격성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발달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 1. 아동학대의 측정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에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 및 방임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하위영역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체적학대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Straus가 1979년도에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적학대 경험 빈도를 응답하게 하는 구조적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으로 하여

금 자신의 신체적학대 경험을 직접 기록하게 하는 개방적 방식을 취하였다. 이 2종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CTS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신체적학대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적학대 측정도구는 Straus(1979)의 CTS 문항의 신체적학대 등급 구분을 근거로 하여 학대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최윤라, 1988). 첫번째 유형은 가벼운 정도의 학대로서 가정에서 종종 행해질 수 있는 학대 유형들로 종아리, 손바닥,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와 회초리로 맞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두 번째 유형은 혁대로 맞은 경우,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으로 지짐을 당한 경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우와 같은 상해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학대유형이다.

본 측정도구는 아동으로 하여금 문항의 예제와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생각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게끔 하는 것으로, ‘한번도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의 보기가 주어졌다.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도 없었다’는 ‘없다’로, ‘드물게 있었다’는 ‘일년에 2-3번 정도’, ‘가끔 있었다’는 ‘한달에 2-3번’, ‘자주 있었다’는 ‘일주일에 1-2번’이라는 설명이 아울러 명기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어 16에서 64점의 점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학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학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대 결과인 상해 정도를 질문하여 응답케 했으며, 학대를 당한 후에 아동의 심적상태가 어떠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를 맞고 난 후의 기분상태를 아울러 질문하여 보았다.

#### 나. 언어적학대

언어적학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

수를 했을 경우,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경우, 또는 뚜렷한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어머니의 언어사용 유형을 아동의 언어적학대에 관한 제연구(신영화, 1986; 고성혜, 1992)시 사용된 문항들과 개방형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15개 문항의 언어적학대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된 예제와 같은 소리를 들은 경험 여부를 물어 봄으로 ‘한번도 없었다’에 1 점, ‘자주 있었다’에 4점을 주어 15점에서 60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학대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9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방 임

방임은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임의 측정을 위해 NCCAN(1986)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최윤라(1988)가 아동관련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방임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본 후,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방임측정도구는 두 가지 분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한 신체적 방임이며, 두번째 범주는 아동의 학교 교육에 무관심한 교육적 방임이다. 각 문항은 ‘한번도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의 4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체적학대와 마찬가지로 ‘없다’ ‘일년에 2-3번’ ‘한달에 2-3번’ ‘일주일에 1-2번’ 등의 예제를 제시하였다. 방임의 가능 점수분포는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71 로 나타났다.

## 2.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의 측정

### 가. 공격성

공격성 측정도구는 Murray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황정규(1965)의 욕구진단검사 가운데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본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첨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40 이상인 25개의 문항을 본 조사 설문지의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공격성 측정도구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25에서 100까지의 점수 분포를 갖는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89 이다.

### 나. 부주의 · 과잉활동증 · 소심증

Rutter(1982)의 반사회적 행동측정 Scale 중 부주의, 과잉활동증, 소심증에 해당하는 20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40 이상인 12문항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부주의에 해당하는 다섯 문항(예 : 난 집중을 잘 못한다)과 과잉활동증에 해당하는 네 문항(예 :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소심증에 해당하는 세 문항(예 :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이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부주의 .71, 과잉활동증의 경우는 .78, 소심증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로 1점에서 4점으로 평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주의, 과잉활동증, 소심증의 점수분포는 각각 5-20,

4-16, 3-12 사이이다.

#### 다. 공 감

공감측정도구는 Bryant의 아동 및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1987)가 직접 제작한 총 17개 문항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다섯 문항을 삭제하고 12문항을 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로 확정지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은 각각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을 주어, 12에서 48사이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

1.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받으면 약이 오른다
2.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 3. 가정환경의 측정

#### 가. 가정분위기

가정환경에 해당하는 가정분위기는 이소희(1989)의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분석연구중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의 측정을 위한 척도 24문항 중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간 상관관계가 낮은 12문항을 제외한 12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제작 사용하였다.

갈등적 분위기는 가족이 서로 이해타산적으로 생활하므로, 가족관계가 비협조적이며, 가정내부에 불신, 시기, 증오가 팽배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 : 우리집 식구들은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폐쇄적 분위기는 불평등과 위계적인 가족의 집단성격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문화내의 가족은 고정된 가족역할의식, 의사소통의 부재, 불평등, 비합리 등의 특성을 지닌다(문항의 예 : 우리집에서는 무엇이든지 나 이 순서대로 한다).

본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의 응답 예를 주고, 각각 1점에서 4점을 주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갈등적 분위기와 폐쇄적 분위기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은 각각 6 문항이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65와 .61이었다.

#### 나. 부부간 불화도

부부간의 불화도는 조사대상자가 되는 아동부모의 사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본 척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체적 폭력행사를 포함한 싸움 여부에 관한 두 문항과 전반적인 부모 사이의 화합 정도를 물어보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간 불화도의 측정 역시 4점 리커트 척도로써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분포는 3-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불화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4 이다.

#### 4. 가정의 인적환경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인적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인적환경과 아동부모의 인적환경이 모두 포함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내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가정의 인적환경 측정문항 내용

| 설문지의 구성         |     | 문 항 내 용                        |
|-----------------|-----|--------------------------------|
| 가정의<br><br>인적환경 | 아 동 | 성별, 연령, 자신을 포함한 형제수            |
|                 | 부 모 | 연령, 결혼상태, 수입, 교육, 직업<br>(실업여부) |

### 제 3 절 조사 실시

#### 1. 조사기간

본 연구는 1회의 예비조사와 1회의 본 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1991년 7월 8일에서 10일까지 동일한 기간내에 서대문구와 서초구에 있는 국민학교 두 곳에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두 가지 형식으로서 설문문항을 제시하고 그 문항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는 구조화된 설문과 아동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도록 하는 개방형질문이 사용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1991년 11월 27일에서 12월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6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총 4부로 이루어진 설문지이며, 총 검사에는 60분에서 8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조사원 2명과 각 학급의 담임교사의 지시 아래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조사의 양이 방대함으로 설문지의 1·2 부와 3·4부를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6학년 아동의 경우는 답하기에 그리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어휘의 어려움과 설문 문항이 많아 3학년 아동의 경우는 응답에 곤란한 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신뢰성 있는 연구 조사를 위한 문항 한 문항을 자세히 읽고 답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문제를 읽어주고 아동의 응답여부를 확인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정의 인적환경에 대한 아동의 기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조사가 끝난 후 각 아동의 가정 환경 조사서를 아동의 응답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 제 4 절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독립 변인별로 집단간 차이의 검증을 위해서 t-test와 변량분석,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은 주로 Stepwise, Hierarchical 방법을 적용하였다.



## 제 4 장 조사결과

###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연구결과의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조사대상자의 학년, 성별 구분 단위 : 명 (%)

|     | 3 학 년      | 6 학 년      |
|-----|------------|------------|
| 남 자 | 222 (43.5) | 288 (56.5) |
| 여 자 | 214 (45.7) | 254 (54.3) |
| 소 계 | 436 (44.6) | 542 (55.4) |
| 전 체 | 978(100.0) |            |

<표 4-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3학년 436명과 6학년 5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표본 436명 중에서 남아가 222명으로 전체 남아의 43.5%, 여아가 214명으로 전체 여아의 45.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6학년의 경우에는 총 표본 542명 중 남아가 288명으로 전체 남아의 56.5%를 차지하고 있고, 여아가 254명으로 54.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남아가 510명으로 표본의 52.1%를 차지하고 있고, 여아가 468명으로 47.9%의 비율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가정의 인적환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부모의 유무를 보면 <표 4-1-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친부인 경우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어머니가 친모인 경우도 9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없다고 응답한 수는 39명

으로 4.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가 없다고 응답한 수는 25명인 2.6%로 분포되어 있다.

〈표 4-1-2〉 조사대상자의 친아버지·친어머니 유무                      단위:명(%)

|       | 아 버 지       | 어 머 지       |
|-------|-------------|-------------|
| 친부(모) | 900 ( 92.0) | 901 ( 92.1) |
| 계부(모) | 19 ( 1.9)   | 22 ( 2.2)   |
| 안계시다  | 39 ( 4.0)   | 25 ( 2.6)   |
| 무응답   | 20 ( 2.1)   | 30 ( 3.1)   |
| 계     | 978 (100.0) | 978 (100.0) |

본인을 포함한 아동의 형제수는 〈표 4-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형제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두 명, 즉 형제(자매)가 한명이 있는 아동이 564명으로 전체의 57.7% 비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형제(자매)가 두명이 있는 아동(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의 비율이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형제수(본인 포함)는 두 명(57.7%) > 세명(22.4%) > 한명(7.4%) > 네명(7.0%) > 다섯명 이상(5.6%)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자녀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 준다.

〈표 4-1-3〉 조사대상자의 형제수 (본인포함)                      단위:명(%)

| 형 제 수  | 명 (%)       |
|--------|-------------|
| 한 명    | 72 ( 7.4)   |
| 두 명    | 564 ( 57.7) |
| 세 명    | 219 ( 22.4) |
| 네 명    | 68 ( 7.0)   |
| 다섯명 이상 | 36 ( 3.7)   |
| 무 응 답  | 19 ( 1.8)   |
| 계      | 978 (100.0) |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 배경 중, 먼저 수입을 보면 <표 4-1-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구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70-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4.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50-70만원 미만(20.8%) > 100-150만원 미만(15.6%) > 50만원 미만(13.9%) > 150-200만원 미만(9.5%) > 200만원 이상(5.7%) 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4> 조사대상자 가구의 한달 평균 수입 단위 : 명(%)

| 수입         | 명 (%)       |
|------------|-------------|
| 50 만 원 미만  | 136 ( 13.9) |
| 50- 70 미만  | 203 ( 20.8) |
| 70-100 미만  | 238 ( 24.3) |
| 100-150 미만 | 153 ( 15.6) |
| 150-200 미만 | 93 ( 9.5)   |
| 200만원 이상   | 56 ( 5.7)   |
| 무응답        | 99 ( 10.2)  |
| 계          | 978 (100.0) |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 부모의 연령, 직업유형, 교육정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연령별 분포는 아버지의 경우 40-49세가 6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30-39세까지가 31.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연령이 높은 일반적인 사회경향을 나타내 준다.

〈표 4-1-5〉 조사대상자 부·모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연령        | 아버지         | 어머니         |
|-----------|-------------|-------------|
| 20-30세 미만 | 4 ( .4)     | 12 ( 1.2)   |
| 30-40세 미만 | 303 ( 31.0) | 619 ( 63.3) |
| 40-50세 미만 | 593 ( 60.6) | 306 ( 31.3) |
| 50 세 이 상  | 55 ( 5.6)   | 19 ( 2.0)   |
| 무응답       | 23 ( 2.4)   | 22 ( 2.2)   |
| 계         | 978 (100.0) | 978 (100.0) |

조사대상자 부모의 직업별 분포는 〈표 4-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직업 유형을 살펴 보면, 사무직이 24.0%, 판매직이 22.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숙련직, 판매직,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업 유형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61.4%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는 4.1%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56%로 나타났고, 직업을 갖고 있는 40.1%의 어머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이 판매직(13.8%)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6〉 조사대상자 부·모의 직업별 유형

단위 : 명(%)

| 직업유형   | 아버지         | 어머니         |
|--------|-------------|-------------|
| 무직(주부) | 40 ( 4.1)   | 548 ( 56.0) |
| 단순노동   | 113 ( 11.6) | 92 ( 9.4)   |
| 반숙련직   | 48 ( 4.9)   | 67 ( 6.9)   |
| 숙련직    | 149 ( 15.2) | 24 ( 2.5)   |
| 판매직    | 217 ( 22.2) | 135 ( 13.8) |
| 사무직    | 235 ( 24.0) | 59 ( 6.0)   |
| 관리직    | 82 ( 8.4)   | 10 ( 1.0)   |
| 전문직    | 31 ( 3.2)   | 5 ( 0.5)    |
| 무응답    | 63 ( 6.4)   | 38 ( 3.9)   |
| 계      | 978 (100.0) | 978 (100.0) |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표 4-1-7>에 나타나 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4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24.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동일하나,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 졸업자보다는 중학교 중퇴·졸업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 > 대졸 > 중졸 > 국졸 > 무학 순이며,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고졸 > 중졸 > 대졸 > 국졸 > 무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4-1-7&gt;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 정도

단위 : 명(%)

| 교 육 정 도          | 아 버 지       | 어 머 니        |
|------------------|-------------|--------------|
| 무 학              | 16 ( 1.6)   | 26 ( 2.7)    |
| 국 민 학 교 중 퇴, 졸 업 | 74 ( 7.6)   | 104 ( 10.6)  |
| 중 학 교 중 퇴, 졸 업   | 150 ( 15.3) | 217 ( 22.2)  |
| 고 등 학 교 중 퇴, 졸 업 | 405 ( 41.4) | 422 ( 43. 1) |
| 대 학 교 중 퇴, 졸 업   | 238 ( 24.3) | 144 ( 14.7)  |
| 대 학 원 이 상        | 50 ( 5.1)   | 23 ( 2.4)    |
| 무 응 답            | 45 ( 4.7)   | 42 ( 4.3)    |
| 계                | 978 (100.0) | 978 (100.0)  |

## 제 2 절 연구문제별 결과 및 해석

## 1. 아동학대 실태 및 경향

( 연구 문제 1 )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 및 전반적인 경향을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신체적학대

## 1) 아동구타 발생실태

신체적학대는 각각의 예제에 대해 ‘한번도 없었다’에서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게 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학대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에 의한 신체적학대의 평균은 21.66(범위 1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신체적학대에 대한 경험이 ‘한번도 없었다’에서 ‘드물게 있었다’의 중간 미만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 가정에서 아동에게 신체적학대를 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비율의 많고 적음의 차원을 떠나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1%만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학대 설문은 신체적학대를 Straus의 CTS 폭력 척도에 의해 학대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성한 것이다. 그 중 첫번째 유형은 「학대정도가 가벼운 학대」로 일반 가정에서 종종 행해질 수 있는 아동구타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번째 유형은 학대의 정도가 크므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아동구타」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유형에 대한 아동의 경험빈도와 백분율은 <표 4-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2-1〉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학대 발생빈도

단위 : 명(%)

| 문항                     | 한번도 없었다    | 드물게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평균   | 표준편차 |
|------------------------|------------|------------|------------|----------|------|------|
| 종아리,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맞았다 | 118 (12.2) | 494 (51.2) | 283 (29.3) | 70 (7.3) | 2.31 | .77  |
|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맞았다         | 423 (43.9) | 318 (33.0) | 170 (17.7) | 52 (5.4) | 1.85 | .89  |
| 회초리로 맞았다               | 428 (44.5) | 321 (33.4) | 150 (15.6) | 63 (6.5) | 1.84 | .91  |
| 굵은 막대기 몽둥이로 맞았다        | 655 (67.9) | 203 (21.1) | 76 ( 7.9)  | 30 (3.1) | 1.46 | .77  |
|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았다       | 533 (55.2) | 304 (31.5) | 93 ( 9.6)  | 35 (3.6) | 1.16 | .80  |

〈표 4-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학대 측정 은 총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한번도 없었다’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드물게 있었다’는 ‘일년에 2-3번’, ‘가끔 있었다’와 ‘자주 있었다’는 각각 ‘한달에 2-3번’, ‘일주일에 1-2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끔’과 ‘자주’의 경우는 각 항목에 대해 빈번한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학대를 그 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 보면, ① 종아리,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맞은 항목에 응답자의 36.6%가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고, 다음으로는 ②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맞은 경우가 (23.1%) ③ 회초리로 맞음 (22.1%) ⑤ 얼굴 등을 맞은 경우 (13.2%) ④ 굵은 막대기로 맞은 경우 (11.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응답자의 11%에서 36.6%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러한 유형의 구타를 경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가 국민학교 아동임을

감안하여 볼 때, 쥐어박히는 정도의 구타가 아니라,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험이 ‘한달에 2-3번’ 혹은 ‘일주일에 1-2번’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11.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형태의 구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항목을 어느 정도 빈번히 경험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평균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2-1>은 각 항목을 평균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섯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은 ① 종아리,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로 그 평균이 2.31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드물게 있었다’와 ‘가끔 있었다’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주일에 1-2번’에 해당하는 ‘자주 있었다’에도 응답자의 7.3%가 응답을 하여, 이러한 형태의 구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비록 문항 ①과 같은 형태의 구타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형태라 할 수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구타라 할지라도 그 발생율이 높을 경우에는 가벼운 형태의 구타만으로도 충분히 아동은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7.3%에 해당하는 아동은 형태의 정도에 관계없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② 빗자루 ③ 회초리로 맞은 경우가 각각 평균 1.85와 1.84를 나타내 평균적으로는 일년에 2-3회 정도 이와 같은 매질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타는 「훈육」과 「교육」을 빌미로 부모나 기타 가족으로부터 감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형태이다. ④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나 ⑤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가벼운 형태의 신체적학대는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드물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형태의 신체적학대를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0명 중 5-7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문항 ① ② ③과 같은 유형의 구타를 ‘일주일에 1-2’번 정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간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신체적학대의 두번째 유형은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여 상해의 위험이 큰 형태의 학대 유형으로서, 요인 분석결과 위험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상해위험 I’로 분류된 다섯 항목의 실태를 보면 다음 <표 4-2-2>와 같다.

<표 4-2-2> 상해위험 I의 신체적학대 발생빈도 단위 : 명(%)

| 문항                           | 한번도 없었다    | 드물게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평균   | 표준편차 |
|------------------------------|------------|------------|----------|----------|------|------|
| 꼬집히거나 할퀴를 당했다                | 745 (77.5) | 133 (13.8) | 48 (5.0) | 35 (3.6) | 1.34 | .73  |
|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 743 (77.4) | 128 (13.3) | 63 (6.6) | 26 (2.7) | 1.34 | .72  |
|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 781 (81.1) | 117 (12.1) | 44 (4.6) | 21 (2.2) | 1.27 | .65  |
| 혁대로 맞았다                      | 841 (87.3) | 81 ( 8.4)  | 25 (2.6) | 16 (1.7) | 1.19 | .55  |
| 던진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에 맞았다 | 851 (88.4) | 74 ( 7.7)  | 28 (2.9) | 10 (1.0) | 1.16 | .50  |

‘상해위험 I’로 분류된 다섯 항목의 예는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학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응답자들이 덜 경험하는 구타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구타 행위를 ‘가끔’, ‘자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① 꼬집히거나 할퀴를 당한 경우가 8.6% ②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은 경우 9.3% ③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친 경우는 6.8% ④ 혁대로 맞은 경우와 ⑤ 던진 물건에 맞은 경우가 각각 4.3%, 3.9%인 것으로 나타

나, 평균 약 6%에 가까운 분포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각 항목의 평균 점수는 1.16에서 1.34로 ‘한번도 없었다’와 ‘드물게 있었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는 각 항목을 평균 점수 순위로 제시한 것으로 ① 꼬집히거나 할퀴를 당한 경우와 ②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은 경우가 평균 1.3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⑤ 던진 물건에 맞은 경우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해위험’이 따르는 신체적학대 유형의 두번째는 ‘상해위험 II’로 편의상 명명하였다. ‘상해위험 II’에 해당하는 네 항목은 ‘상해위험 I’에 비해 그 위험의 정도가 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와 찬물을 끼얹거나 담뱃불 같은 것으로 아동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과 빈도 및 평균은 <표 4-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2-3> 상해위험 II의 신체적학대 발생빈도

단위 명 (%)

| 문항                        | 한번도<br>없었다 | 드물게<br>있었다 | 가끔<br>있었다 | 자주<br>있었다 | 평<br>균 | 표<br>준<br>편<br>차 |
|---------------------------|------------|------------|-----------|-----------|--------|------------------|
| 찬물을 끼얹었다                  | 892 (92.4) | 51 (5.3)   | 14 (1.5)  | 8 (.8)    | 1.10   | .41              |
| 방, 다락, 창고 등에<br>갇혔었다      | 919 (95.2) | 36 (3.7)   | 6 (.6)    | 4 (.4)    | 1.06   | .30              |
|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br>으로 지짐을 당했다 | 925 (96.0) | 25 (2.0)   | 8 (.8)    | 6 (.6)    | 1.06   | .33              |
| 팔, 다리가 묶였었다               | 943 (97.6) | 11 (1.1)   | 7 (.7)    | 5 (.5)    | 1.04   | .29              |

〈표 4-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해위험 II'에 해당하는 네 항목은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동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시에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되는 항목이다. 먼저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한 '가끔' '자주'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① 찬물 끼얹음을 당한 경우에 응답자의 2.3%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② 방, 다락, 창고 등에 갇힌 경우는 1.0% ③ 담배불이나 뜨거운 것으로 지짐을 당한 경우는 1.4% ④ 팔, 다리가 묶여 신체적 자유가 구속된 경우는 1.2% 비율로 경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비록 수치상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③ ④ 항목의 경우에는 '일년에 2-3번' 정도 경험하는 비율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해위험 II'에 해당하는 이 항목들의 평균 경험빈도는 1.04에서 1.10의 낮은 평균값을 갖고 있어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① 찬물 끼얹음을 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고 ④ 팔, 다리가 묶인 경우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2-4〉 상해위험 III의 신체적학대 발생빈도

단위 : 명(%)

| 문항            | 한번도 없었다    | 드물게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평균   | 표준편차 |
|---------------|------------|----------|--------|--------|------|------|
|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했다 | 949 (98.3) | 10 (1.0) | 2 (.2) | 4 (.4) | 1.02 | .23  |
| 칼에 찔렸다        | 948 (98.3) | 11 (1.1) | 4 (.4) | 4 (.1) | 1.02 | .19  |

다음으로 ①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우와 ② 칼에 찔린 경우에 '가끔' '자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위험 III'에 해당하는 이 두 항목은 그 상해 정도가 대단히 큰 것

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학대가 ‘드물게’ 행해지더라도 그것은 심각한 신체적학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드물게’라고 응답한 비율을 포함시켜 본다면, 항목 ① ② 모두 1.6%의 경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비율은 작지만 ‘드물게’ 경험하는 아동들의 수치까지를 포함해 볼 때 우리사회에도 이러한 극단적인 신체적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생빈도 면에서는 두 항목 모두 평균 1.02를 기록해 이러한 형태의 신체적학대 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일반가정의 아동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소나 상담소 혹은 임상실에 위탁된 아동을 표본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가정에서 비록 1.6%(‘드물게 경험’ 비율 포함)의 아동이 위와 같은 학대를 부모나 기타 가족으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회초리로 맞은 경우’나 ‘종아리를 맞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평균과 비율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작지만, 이 행위의 심각성, 특수성으로 인해 단 한번의 발생이라도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할 것이다.

## 2) 아동구타의 신체적 결과

신체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학대에 의한 결과를 수반하여, 신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맞은 부위가 부어 오른다든가, 할퀴 자국이 생기고, 멍이 드는 등의 가벼운 손상에서부터 팔, 다리를 빼거나 피가 나고 보행이 곤란하게 되는 손상과 이에 더 나아가 뼈가 부러지거나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아동이 혼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이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신체가 손상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의 아동의 경험빈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2-5〉 아동구타의 신체적 결과

단위 : 명(%)

| 문항                | 한번도 없었다    | 드물게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평균   | 표준편차 |
|-------------------|------------|------------|------------|----------|------|------|
| 머리가 들었다           | 463 (48.1) | 366 (38.0) | 102 (10.6) | 32 (3.3) | 1.69 | .79  |
| 맞은 부위가 몹시 부었다     | 603 (62.7) | 257 (26.7) | 72 ( 7.5)  | 29 (3.0) | 1.50 | .76  |
| 자국, 할퀴 상처 등이 생겼다  | 643 (67.0) | 233 (24.3) | 63 ( 6.6)  | 21 (2.2) | 1.44 | .71  |
| 손가락 혹은 팔, 다리를 빼었다 | 763 (79.1) | 147 (15.2) | 36 ( 3.7)  | 18 (1.9) | 1.28 | .62  |
| 피가 났다             | 785 (81.5) | 112 (11.7) | 41 ( 4.3)  | 23 (2.4) | 1.27 | .65  |
|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다    | 819 (85.3) | 108 (11.3) | 22 ( 2.3)  | 11 (1.1) | 1.19 | .52  |
| 담뱃불, 뜨거운 것에 태었다   | 863 (89.6) | 72 ( 7.5)  | 20 ( 2.1)  | 8 ( .8)  | 1.14 | .46  |
| 이가 흔들리거나 부러졌다     | 864 (89.9) | 66 ( 6.9)  | 22 ( 2.3)  | 9 ( .9)  | 1.14 | .47  |
| 머리를 맞아 두통에 시달렸다   | 869 (90.4) | 64 ( 6.7)  | 18 ( 1.9)  | 10 (1.0) | 1.13 | .46  |
|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 933 (96.8) | 19 ( 2.0)  | 7 ( .7)    | 5 ( .5)  | 1.05 | .30  |
| 뼈가 부러졌다           | 947 (98.2) | 12 ( 1.2)  | 2 ( .2)    | 3 ( .3)  | 1.02 | .21  |
| 고막이 터졌었다          | 954 (99.2) | 6 ( .6)    | 1 ( .1)    | 1 ( .1)  | 1.01 | .14  |
| 배를 채여 창자가 터졌다     | 959 (99.6) | 2 ( .2)    | 2 ( .2)    |          | 1.00 | .10  |
| 불구나 병신이 되었다       | 956 (99.5) | 4 ( .4)    | 1 ( .1)    |          | 1.00 | .09  |
| 기타                | 644 (65.8) | 144 (14.7) | 42 ( 4.3)  | 18 (1.8) | 1.33 | .67  |

학대로 인한 손상 경험의 유무별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신체적 손상은 ‘멍이 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들은 ‘멍이 들었다’라는 항목에 13.9%가 구타로 인하여 멍이 들은 경험이 ‘가끔’ 혹은 ‘자주’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맞은 부위가 몹시 부었다’에 12.5%, ‘빨간 자국, 깨문 자국, 할퀴 상처 등이 생김’에 전체의 8.8%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손가락, 팔, 다리를 뺨 경우’와 ‘피가 났다’가 비슷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각각 5.6%, 6.7%).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한 손상이라 볼 수 있는 항목이외에, 손상정도가 더 심하다 할 수 있는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에 덴 상처’나 ‘이가 흔들리거나 부러진 경우’, ‘머리를 맞아 두통에 시달린 경우’도 약 3% 이상이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상에 해당하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1.2%), 뼈가 부러지거나(.5%), 고막이 터지고(.2%), 볼구가 되거나(.2%), 창자가 터진 경우(.1%)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0.5% 미만이며 그 정도가 심할수록 경험비율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손상의 발생빈도를 살펴 보면, 멍이 들었다 > 맞은 부위가 몹시 부었다 > 빨간 자국, 깨문 자국, 할퀴 상처 등이 생겼다 등의 순으로 경한 정도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험 유무별 분포와 동일한 것으로 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덜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평균이 낮다하여도 중한 손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발생으로 인한 손상이 치명적인 것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신체적 학대자

본 연구에서는 가정이라는 장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학대라 하면, 그 행위자가 가족원, 혹은 가구원으로 한정되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정에서 행해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는 두 가지 면에서 행위의 주체자를 구분할 수 있다. 평상시에

아동을 가장 빈번하게 구타하는 주체와 심하게 구타하는 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① 신체적학대의 주행위자

‘평상시에 여러분을 가장 자주 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결과를 얻었다.

〈표 4-2-6〉 아동 구타 주행위자

단위:명 (%)

|       | 아 버 지      | 어 머 니      | 할아버지   | 할 머 니    | 친 척      | 형 제       | 기 타        |
|-------|------------|------------|--------|----------|----------|-----------|------------|
| 명 (%) | 157 (17.0) | 421 (45.7) | 5 ( 5) | 10 (1.1) | 17 (1.8) | 207(22.5) | 104 (11.3) |

〈표 4-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을 신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학대하는 가족원은 어머니인 경우가 4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형제(22.5%) > 아버지(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내에서 아동을 자주 구타하는 행위자는 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편에서의 아동에 대한 감정적 구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고성혜, 1991). 또한 구타 주행위자에서 형제가 이순위를 차지한 결과는 형제들간의 상호작용 중 구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심한 신체적학대의 주행위자

평상시에 아동을 가장 빈번하게 구타하는 행위자는 어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구타하는 사람들 중 가장 심하게 구타하는 가족원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 4-2-7〉 가장 심하게 학대하는 사람

단위:명(%)

|       | 아 버 지      | 어 머 니      | 할아버지     | 할 머 니   | 친 척      | 형 제       | 기 타        |
|-------|------------|------------|----------|---------|----------|-----------|------------|
| 명 (%) | 396 (44.0) | 221 (24.7) | 12( 1.3) | 5 ( .6) | 16 (1.8) | 141(15.7) | 109 (12.1) |

〈표 4-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을 가장 심하게 때리는 사람은 어머니(24.7%)가 아니라 아버지(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비록 구타의 빈도에서는 어머니 > 형제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였지만, 아동을 가장 심하게 때리는 사람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아동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아동의 양육이나 교육 문제에 있어 어머니에 비해 방관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 아동을 자주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나, 횟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의 아동구타는 그 정도에 있어서 심각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을 자주 구타하기는 하나 신체적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다 볼 수 있으며, 아버지는 구타 횟수는 적으나 한번의 경우라 하더라도 심하게 신체적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신영화(1986), 안동현 등(1988), 김광일 등(1988)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남녀의 근력의 차이가 아동구타 정도의 차이를 낳게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미비하기는 하나 할아버지의 경우도 할머니보다 행위의 빈도는 낮았으나 심한 학대자에서는 할머니보다 높은 구타 비율을 보인 점을 들 수 있다. 즉 할아버지의 경우는 〈표 4-2-6〉에서는 .5%를, 〈표 4-2-7〉에선 1.3%를 보이고 있고, 할머니의 경우는 각각 1.1% 와 .6%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인 어머니와 할머니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아동을 때리기는 하나 남성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도가 더 심한 구타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버지가 더 많이 때린다는가(American Human Association, 1978)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동을 학대하기는 비슷하다(Martin, 1978)는 등의 외국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누가 학대의 주체인가를 결론짓기는 이르다. 어머니는 주로 조사의 응답자이며 정보제공자가 되는 반면, 아버지에게는 아동 양육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태도가 어머니와 다르리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학대형태를 구별해서 연구한 것이 드물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성차나 학대하는 남성의 특별한 인성특성 등과 관

런시켜 연구를 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 4) 신체적학대 이후의 아동의 감정상태

가정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심하게 아동을 구타하는 행위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아동이 매를 맞고 난 이후에 느끼는 감정상태를 알아 보기로 한다.

〈표 4-2-8〉 매를 맞고 난 후의 기분

단위 : 명(%)

| 문항                     | 한번도<br>없었다 | 드물게<br>있었다 | 가끔<br>있었다  | 자주<br>있었다  | 평<br>균 | 표<br>준<br>편<br>차 |
|------------------------|------------|------------|------------|------------|--------|------------------|
| 기분이 몹시 나쁘다             | 243 (25.4) | 346 (36.1) | 203 (21.2) | 166 (17.3) | 2.30   | 1.03             |
| 화가 난다                  | 228 (23.7) | 375 (38.9) | 216 (22.4) | 145 (15.0) | 2.28   | .99              |
| 서럽고 슬프다                | 330 (34.4) | 354 (36.9) | 163 ( 7.0) | 112 (11.7) | 2.05   | .98              |
| 억울하고 분하다               | 355 (36.8) | 354 (36.7) | 176 (18.2) | 80 ( 8.3)  | 1.98   | .93              |
| 내가 필요없는 존재<br>라고 느낀다   | 496 (51.7) | 274 (28.5) | 113 (11.8) | 77 ( 8.0)  | 1.76   | .94              |
| 마구 대들고 싶다              | 525 (54.7) | 244 (25.4) | 118 (12.3) | 73 ( 7.6)  | 1.72   | .94              |
| 어머니(父)에 대해<br>증오심을 느낀다 | 408 (49.7) | 317 (32.8) | 133 (13.8) | 35 ( 3.6)  | 1.71   | .83              |
| 집을 나가고 싶은 생<br>각이 든다   | 542 (56.2) | 234 (24.3) | 126 (13.1) | 62 ( 6.4)  | 1.69   | .92              |
| 어머니(父)가 미워지<br>고 싫어진다  | 544 (56.5) | 265 (27.5) | 114 (11.8) | 40 ( 4.2)  | 1.63   | .84              |
| 죽어버리고 싶은 생<br>각이 든다    | 604 (62.7) | 220 (22.8) | 86 ( 8.9)  | 54 ( 5.6)  | 1.57   | .87              |
| 수치감과 모욕감을<br>느끼다       | 608 (63.1) | 228 (23.7) | 87 ( 9.0)  | 41 ( 4.3)  | 1.54   | .82              |
| 집에 들어가기가 무<br>섭다       | 656 (68.4) | 169 (17.6) | 85 ( 8.9)  | 49 ( 5.1)  | 1.50   | .85              |
| 친엄마(父)가 아닌가<br>생각한다    | 706 (73.3) | 153 (15.9) | 76 ( 7.6)  | 28 ( 2.9)  | 1.40   | .75              |
| 어머니(父)가 없었으<br>면 좋겠다   | 808 (83.9) | 99 (10.3)  | 37 ( 3.8)  | 19 ( 2.0)  | 1.23   | .01              |

〈표 4-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 매를 맞고 난 이후에 38.5%가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감정상태를 ‘가끔’ 혹은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가 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7.4%이며, ‘서럽고 슬프다’, ‘억울하고 분하다’, ‘어머니(아버지)에 대해 증오심을 느낀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20%가 해당하고 있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와 ‘화가 난다’는 기분은 각각 2.30과 2.28의 평균점을 보이고 있어, 그 절대적 수치에 의한 경험빈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이 두 가지 기분을 자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아버지)가 미워지고 싫어진다(16.0%)’ 혹은 ‘어머니(아버지)에 대해 증오심을 느낀다(17.4%)’나, 더 나아가 ‘차라리 어머니(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5.8%)’라고 생각하거나, ‘어머니(아버지)가 친엄마(친아버지)인가(10.5%)’라는 기분과 ‘필요 없는 존재(19.8%)’라고 느끼며 ‘죽어버리고 싶다(14.5%)’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끔’ 혹은 ‘자주’ 적지 않은 아동들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이 구타를 당함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릴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급기야는 자기실존에 대한 회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감정이 누적되면 타인이나 사회일반에 대한 적대감, 부정적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나.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와 같이 외형적인 상처는 아니나,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적학대 실태파악을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한번도 없었다’에 1점을, ‘자주 있었다’에 4점을 주어 평점하였다. 언어적학대의 가능 점수 범위는 15-60점이며, 실제 점수 분포는 15-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19.27이었다.

〈표 4-2-9〉 언어적학대 실태

단위 : 명(%)

| 문항                    | 한번도<br>없었다 | 드물게<br>있었다 | 가끔<br>있었다 | 자주<br>있었다 | 평<br>균 | 표<br>준<br>편<br>차 |
|-----------------------|------------|------------|-----------|-----------|--------|------------------|
| 꿀도 보기 싫다              | 554 (57.5) | 287 (29.8) | 87 ( 9.0) | 35 ( 3.6) | 1.58   | .80              |
| 병신같은 것, 멍청한 것         | 589 (61.5) | 266 (27.8) | 73 ( 7.6) | 30 ( 3.1) | 1.52   | .76              |
| 이 웬수야                 | 644 (66.9) | 23 (24.0)  | 67 ( 7.0) | 21 ( 2.2) | 1.44   | .71              |
| 으이그 돌대가리 같<br>으니      | 711 (74.1) | 182 (19.0) | 44 ( 4.6) | 23 ( 2.4) | 1.35   | .68              |
| 너보다 못난애는 하<br>나도 없어   | 738 (76.8) | 151 (15.7) | 46 ( 4.8) | 26 ( 2.7) | 1.33   | .69              |
| 엄마는 도망가 버릴<br>꺼야      | 749 (77.9) | 171 (17.8) | 33 ( 3.4) | 9 ( .9)   | 1.27   | .56              |
| 너는 집안의 골치덩<br>이야      | 777 (80.9) | 141 (14.7) | 28 ( 2.9) | 15 ( 1.6) | 1.25   | .58              |
| 학교 그만 뒤. 돈이<br>나 벌어와  | 782 (81.3) | 125 (13.0) | 42 ( 4.4) | 13 ( 1.4) | 1.25   | .60              |
| 넌 죽어도 싸다              | 789 (82.0) | 127 (13.2) | 32 ( 3.3) | 14 ( 1.5) | 1.24   | .58              |
| 너 죽고 나 죽자. 죽<br>어 버려라 | 793 (82.4) | 130 (13.5) | 29 ( 3.0) | 10 ( 1.0) | 1.22   | .54              |
| 넌 내자식이 아니다            | 813 (84.5) | 106 (11.0) | 29 ( 3.0) | 14 ( 1.5) | 1.21   | .56              |
| 집 나가 버려라              | 817 (85.0) | 102 (10.6) | 32 ( 3.3) | 10 ( 1.0) | 1.20   | .54              |
| 갖다 버리겠다               | 844 (88.0) | 86 ( 9.0)  | 18 ( 1.9) | 11 ( 1.1) | 1.16   | .49              |
| 누가 잡아가 버리지            | 862 (90.0) | 64 ( 6.7)  | 21 ( 2.2) | 11 ( 1.1) | 1.14   | .48              |
| 때려 죽여 버리겠다            | 873 (88.0) | 60 ( 6.2)  | 22 ( 2.3) | 7 ( .7)   | 1.13   | .45              |

〈표 4-2-9〉는 15개 항목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항목 중 가장 많은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꼴도 보기 싫어’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40% 가량이 이런 말을 듣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9.0%가 ‘가끔’, 3.6%에 해당하는 아동이 ‘자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일차적인 사회화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 양육자가 의도적이든, 습관적이든간에 이러한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인이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병신같은 것, 멍청한 것’이나 ‘이 웬수야’라는 전형적으로 욕지거리에 해당하는 표현들임을 볼 수 있다. 아동이 비교적 적게 경험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때려 죽여 버리겠다’나 ‘누가 잡아가 버리지’와 같이 다른 항목들과는 의미상 다소 다른 성격을 띄는 표현들이 있다.

〈표 4-2-9〉에 제시된 항목은 문장의 의미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꼴도 보기 싫어’ 항목에서 ‘학교 그만 두고 돈이나 벌어 오라’는 항목까지는 가정에서 양육자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욕」의 형태로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죽어도 싸다’라는 항목에서부터 ‘누가 잡아가 버리지’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주로 아동의 「실존에 대한 직접적인 욕」으로서, 아동의 존재여부에 대한 근원적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위의 15개나, 항목을 논의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일반적인 욕」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실존에 대한 욕」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경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존에 대한 욕」의 경우에도 전체의 3.0%에서 4.8%에 해당하는 아동이 ‘가끔’ ‘자주’ 이러한 형태의 말들을 듣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욕은 경험의 빈도가 누적되어짐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알게 모르게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아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표현을 양육자가 쓸 경우 양육자에 대한 아동의 신뢰가 떨어

어짐과 동시에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이러한 시각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반사회적인 행동과 성향을 낳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다. 방 입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이 누적되면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방임은 8-27의 점수분포(가능 점수범위 : 8-32)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며, 평균은 9.94점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 방임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임측정 설문항목들은 크게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신체적 방임이란 아동에 대한 지도, 감독의 소홀 등을 의미하며, 교육적 방임은 아동의 학업지도 및 학교생활에 무관심한 것을 뜻한다.

〈표 4-2-10〉 신체적 방임 발생빈도

단위 : 명 (%)

| 문항                     | 한번도 없었다   | 드물게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평균   | 표준편차 |
|------------------------|-----------|---------|---------|---------|------|------|
| 어디를 가든지 상관치 않는다        | 830(86.2) | 85(8.8) | 21(2.2) | 27(2.8) | 1.21 | .61  |
|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 849(88.2) | 69(7.2) | 21(2.2) | 24(2.5) | 1.19 | .58  |
|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 890(92.3) | 42(4.4) | 15(1.6) | 17(1.8) | 1.12 | .49  |
|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치 않는다 | 903(93.8) | 31(3.2) | 8(.8)   | 21(2.2) | 1.11 | .49  |

〈표 4-2-10〉에 제시된 것은 아동의 신체적 방임경험 정도 및 빈도이다. 〈표 4-2-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체적 방임을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다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약 5.0%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부모가 상관치 않는다(5.0%)’의 감독 소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위험한 것을 가지고 노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감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1〉 교육적 방임의 발생빈도

단위 : 명 (%)

| 문항                      | 한번도 없었다   | 드물게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평균   | 표준편차 |
|-------------------------|-----------|-----------|----------|---------|------|------|
| 숙제를 해가는지 안 해가는지 잘 모름    | 576(59.8) | 224(23.2) | 98(10.2) | 66(6.8) | 1.64 | .91  |
|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에 신경을 써주지 않음 | 764(79.7) | 153(16.0) | 23( 2.4) | 18(1.9) | 1.26 | .59  |
| 학교에 내는 돈을 제때 챙겨주지 않음    | 766(79.9) | 156(16.3) | 23( 2.4) | 14(1.5) | 1.25 | .57  |
| 학용품이 떨어져도 모르거나 잘 사주지 않음 | 847(87.9) | 75( 7.8)  | 25( 2.6) | 17(1.8) | 1.18 | .55  |

방임 중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적 방임」의 범주에 포함된 설문 항목은 부모가 아동의 숙제에 신경을 써 주는지, 학교 준비물을 챙겨 주는지, 학용품에는 주의를 기울이는지, 학교에 내야되는 돈을 제 때 주는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아동이 가장 많이 방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내가 숙제를 해가는지 안 해가는지 잘 모른다’라는 항목으로, 전체의 17.0%의 아동이 ‘한달에 2-3번 이상’ 경험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무관심한 적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준비물’ ‘학교에 내는 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항목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용품이 떨어져도 모르거나 잘 사주지 않음’ 항목이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으로는 아동의 교육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나 정작 관심을 기울여 지도해야 하는 학교 과제물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방임의 전반적인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없었다’는 비율이 모두 86% 이상인 「신체적 방임」 경험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교육적 방임」을 아동들이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아동이 나가 노는 것, 늦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아동의 신체적 거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이에 비교해 아동이 가정에 무사히 와 있다는 것만으로 부모로서의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했다 생각하고 아동의 실제적인 교육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아동학대와 관련변인

(연구 문제 2)

본 절에서는 가정의 분위기 및 부부의 불화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성하는 부모의 교육 정도, 아버지의 직업 및 실업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친부모 여부, 또한 아동 자신의 성별, 연령, 형제수 등의 변인등

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제 변인 중 아동학대에 어떤 변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아동학대와 제변인과의 일차적 상관관계

아동학대와 제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4-2-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학대와 관련이 있는 변인은 부부의 불화도, 갈등적 분위기, 전제적 분위기, 부모의 교육 정도,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실업 여부와 어머니의 취

<표 4-2-12> 아동학대와 제변인과의 단순상관관계

|          | 부부의<br>불화도         | 갈등적<br>분위기        | 전제적<br>분위기         | 부의<br>직업           | 부의<br>교육           | 모의<br>교육           |
|----------|--------------------|-------------------|--------------------|--------------------|--------------------|--------------------|
| 신체적 학대   | .21***             | .28***            | .24***             | -.03 <sup>NS</sup> | -.11***            | -.12***            |
| 언어적 학대   | .26***             | .30***            | .22***             | -.06 <sup>NS</sup> | .07*               | -.08**             |
| 방      임 | .24***             | .29***            | .25***             | -.06 <sup>NS</sup> | -.06 <sup>NS</sup> | -.09**             |
|          | 부의<br>실업           | 모의<br>취업          | 친부모<br>여    부      | 성별                 | 연령                 | 형제수                |
| 신체적 학대   | -.04 <sup>NS</sup> | .01 <sup>NS</sup> | -.05 <sup>NS</sup> | -.19***            | -.15***            | .01 <sup>NS</sup>  |
| 언어적 학대   | -.05 <sup>NS</sup> | .02 <sup>NS</sup> | -.01 <sup>NS</sup> | -.13***            | -.05 <sup>NS</sup> | -.02 <sup>NS</sup> |
| 방      임 | -.05 <sup>NS</sup> | .08*              | -.04 <sup>NS</sup> | -.10***            | .10*               | .06*               |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업 여부, 부모의 친부모 여부와 아동의 형제수는 아동의 신체적학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변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의 불화도와 아동학대는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 방임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각각  $r=.21$ ,  $r=.26$ ,  $r=.24$ ,  $P<.001$ ). 즉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불화가 심할수록 그 부부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어, 부부의 불화도가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도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을 방임하는 정도 역시 부부의 불화도와 정적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부의 불화도가 가족의 구성원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라면,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 변인은 총체적인 가정의 분위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가 아동의 학대를 확립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이소희, 1989)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즉 가정분위기인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는 신체적학대의 경우 각각  $.28(P<.001)$ ,  $.24(P<.001)$ 로, 언어적학대와는  $.30(P<.001)$ ,  $.22(P<.001)$ , 방임과는  $.29(P<.001)$ ,  $.25(P<.001)$ 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학대를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 방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가정의 분위기는 아동학대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이거나 전제적일수록 아동은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많이 경험하며 언어적인 학대 역시 증가하고, 더 많이 방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변인과 아버지의 실업 여부 변인의 경우는 아동학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방향성이 부적인 것만으로 나타나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실업 여부와 아동학대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한 까닭의 하

나는 아버지가 무직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의 4.1%라는 적은 분포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차후 표집을 다시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변인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와는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고성혜, 1992). 다만 어머니가 취업을 할 경우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에 소홀해져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생활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r=.08$ ,  $P<.05$ ).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정도 변인과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표 4-2-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부모가 모두 친부모인지 어느 한 편이라도 계부(모)인지에 의해 친부모 여부 변인은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 여부와 아동학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본 연구에서의 표집이 너무 적어 결론을 짓기는 무리이므로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다음으로 아동 자신의 성과 연령, 형제수는 아동학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아동의 성 변인을 보면, 아동이 남아나 여아냐에 따라 아동학대 정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은 신체적학대와 방임과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언어적학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2-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적학대는 감소하고, 방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형이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직접적인 신체적학대에서 간접적인 학대방식인 방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아동의 형제수는 학대 유형 중 오로지 방임과만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형제가 많은 아동일수록 아동들에게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분산되어짐으로 방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으로 아동학대와 제변인들간의 일차적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가정의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가정의 분위기와 부부관계가 아동학대와 더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성별과 연령 또한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여러 변인들간의 상호 영향력을 통제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과연 무엇이며 변인들간에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 나. 아동학대와 관련변인 및 영향력

##### 1) 관련변인별 아동학대 실태

여기에서는 아동학대에 주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 문제의 하나인 각 변인별 아동학대의 평균을 제시하고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가정환경변인별 아동학대 실태

###### a. 가정 분위기 및 부부 불화도 변인과 아동학대 실태

가정분위기와 부부 불화도 정도를 평균점을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아동학대 실태에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하여 보았다. <표 4-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은 갈등적 분위기, 전제적 분위기, 부부의 불화도 정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가정의 갈등적인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 점수가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아동을 많이 학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불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불화도가 높은 집단은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 방임에서 낮은 집단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고성혜, 1992; 노치영, 1988; 소속희, 1986) 가족 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사이가 건강하지 못

할 때, 가족의 전반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분위기를 갈등적으로 이끌어 자녀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상처를 받고, 나아가 가족폭력의 희생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2-13〉 부부 불화도 및 가정분위기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            |    | 신체적학대     |      | 언어적학대     |      | 방         | 임    |
|------------|----|-----------|------|-----------|------|-----------|------|
|            |    | M         | SD   | M         | SD   | M         | SD   |
| 갈등적<br>분위기 | 상  | 23.10     | 5.29 | 21.17     | 7.15 | 10.82     | 3.49 |
|            | 하  | 20.87     | 4.09 | 18.09     | 4.70 | 9.27      | 2.27 |
|            | t값 | -6.51 *** |      | -6.94 *** |      | -6.26 *** |      |
| 전제적<br>분위기 | 상  | 22.36     | 4.86 | 20.15     | 6.55 | 10.48     | 3.21 |
|            | 하  | 21.00     | 4.46 | 18.31     | 4.91 | 9.43      | 2.20 |
|            | t값 | -4.36 *** |      | -4.74 *** |      | -5.69 *** |      |
| 부부의<br>불화도 | 상  | 22.84     | 5.43 | 20.66     | 7.12 | 10.65     | 3.26 |
|            | 하  | 20.97     | 4.08 | 18.36     | 5.02 | 9.48      | 2.35 |
|            | t값 | -5.46 *** |      | -5.22 *** |      | -5.80 *** |      |

\*\*\* P<.001

#### b. 사회경제적 변인과 아동학대 실태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학대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4-2-14〉는 본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구성하는 제변인들의 집단별 아동학대 실태의 평균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과 t-검증한 결과이다.

〈표4-2-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아동학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의 직업지위, 아버지의 실업 여부, 친부모 여부 변인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 유무 변인의 경우는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광일

〈표 4-2-14〉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              |       | 신체적학대      |      | 언어적학대      |       | 방          | 임    |
|--------------|-------|------------|------|------------|-------|------------|------|
|              |       | M          | SD   | M          | SD    | M          | SD   |
| 아 버 지<br>교 육 | 무 학   | 25.53      | 8.52 | 23.25      | 12.20 | 11.62      | 3.40 |
|              | 국 졸   | 23.21      | 5.45 | 20.48      | 6.20  | 10.22      | 2.93 |
|              | 중 졸   | 22.00      | 5.01 | 19.86      | 6.64  | 9.94       | 2.90 |
|              | 고 졸   | 21.26      | 4.27 | 18.85      | 4.98  | 9.98       | 2.94 |
|              | 대졸이상  | 21.45      | 4.43 | 19.02      | 6.38  | 9.73       | 2.58 |
|              | F 값   | 5.70 ***   |      | 3.45 ***   |       | 1.97 N.S.  |      |
| 어 머 니<br>교 육 | 무 학   | 26.04      | 8.31 | 22.76      | 8.81  | 11.68      | 3.07 |
|              | 국 졸   | 22.53      | 5.52 | 20.79      | 7.68  | 10.06      | 2.98 |
|              | 중 졸   | 21.29      | 4.04 | 19.30      | 5.57  | 10.00      | 2.79 |
|              | 고 졸   | 21.45      | 4.32 | 18.75      | 5.12  | 9.87       | 2.78 |
|              | 대졸이상  | 21.36      | 4.56 | 19.03      | 6.57  | 9.67       | 2.76 |
|              | F 값   | 7.04 ***   |      | 4.62 ***   |       | 2.86 *     |      |
| 아 버 지<br>직 업 | 무 직   | 23.29      | 6.12 | 20.33      | 7.37  | 10.72      | 3.92 |
|              | 단순노동  | 21.95      | 4.39 | 20.41      | 6.95  | 10.19      | 2.92 |
|              | 반숙련직  | 22.04      | 5.46 | 19.52      | 5.58  | 10.17      | 2.89 |
|              | 숙련직   | 21.65      | 4.54 | 19.27      | 5.35  | 9.95       | 2.68 |
|              | 판매직   | 21.46      | 4.68 | 18.99      | 5.97  | 9.99       | 2.93 |
|              | 사무직   | 21.71      | 4.75 | 18.82      | 5.99  | 10.01      | 2.96 |
|              | 관리직   | 21.08      | 4.70 | 19.14      | 5.92  | 9.20       | 1.73 |
|              | 전문직   | 21.03      | 3.98 | 17.96      | 4.24  | 9.06       | 1.73 |
|              | F 값   | 1.00 N.S.  |      | 1.21 N.S.  |       | 1.83 N.S.  |      |
| 아 버 지<br>실 업 | 실 업   | 23.29      | 6.12 | 20.33      | 7.37  | 10.72      | 3.92 |
|              | 취 업   | 21.60      | 4.66 | 19.18      | 5.94  | 9.91       | 2.78 |
|              | t 값   | 1.66 N.S.  |      | .96 N.S.   |       | 1.28 N.S.  |      |
| 어 머 니<br>직 업 | 주 부   | 21.51      | 4.65 | 19.06      | 5.98  | 9.76       | 2.51 |
|              | 취 업   | 21.89      | 4.74 | 19.52      | 6.03  | 10.18      | 3.17 |
|              | t 값   | -1.21 N.S. |      | -1.15 N.S. |       | -2.13 *    |      |
| 친 부 모<br>여 부 | 친 부 모 | 21.62      | 4.62 | 19.14      | 5.77  | 9.90       | 2.77 |
|              | 기 타   | 22.16      | 5.62 | 20.09      | 7.03  | 10.27      | 3.14 |
|              | t 값   | -.86 N.S.  |      | -1.21 N.S. |       | -1.04 N.S. |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등(1986), 변화순(198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고성혜(1992)의 연구와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어머니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업의 종류와 아동의 연령을 좀 더 세분해서 심층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방임의 경우에만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아동이 더 방임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긍할 만한 결과라고 하겠다.

집단에 따라 아동학대 정도에 차이를 나타낸 변인 중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Duncan 검정 결과 신체적학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무학인 경우와 중졸, 고졸, 대졸 이상과의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P<.05$ ), 국졸일 때와 고졸, 대졸 이상과 집단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P<.05$ ), 언어적학대와 방임의 경우에는 무학과 중졸, 고졸, 대졸 이상과 집단 차이를 보이고 있다(사후검증결과는 부록에 제시함). <표 4-2-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 변인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을 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적학대의 경우에는 무학 집단이 국졸이상 집단들과 모두 의미있는 집단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졸인 경우에는 중졸과 고졸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어적학대는 무학과 국졸집단 모두 중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평균 차이를 나타내며, 방임 점수는 무학 집단과 국졸 이상의 집단들 사이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아동 관련변인과 아동학대 실태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별과 연령, 형제수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는 다음 <표 4-2-15>와 같다. <표 4-2-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아동학대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이다. 각 아동학대 유형의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세 가지 유형 모두

남아의 경우가 여아의 경우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Gil, 1979; Gelles, & Straus, 1979; 김혜영, 1986; 신영화, 1986; 김광일, 고복자, 1987; 안동현, 홍강의, 1987; 이소희, 1990; 고성혜, 1992;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991).

연령 변인의 경우에는 언어적학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신체적학대와 방임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학대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학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P < .001$ ), 방임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령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방임 점수를 갖고 있다( $P < .001$ ). 즉,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적인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학대는 감소하나 오히려 방임되어지는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린 나이일수록 부모가 폭력을 많이 휘두르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지도력이나 완력의 부족 등으로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두 연령층이었기 때문에 연령폭을 넓혀서 학대의 영역별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형제수 변인은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방임의 경우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임의 평균을 살펴보면, 형제수가 많을수록 부모로부터의 방임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경향이 나타나 있다. 이는 신영화(1986), 고성혜(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수가 많을 때 자연히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 자녀를 방치해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Duncan 검증결과 형제수가 네명 이상인 집단이 기타 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5〉 아동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       |       |  | 신체적학대    |      | 언어적학대    |      | 방        | 임    |
|-------|-------|--|----------|------|----------|------|----------|------|
|       |       |  | M        | SD   | M        | SD   | M        | SD   |
| 성 별   | 남 아   |  | 22.59    | 5.11 | 20.09    | 6.59 | 10.18    | 2.87 |
|       | 여 아   |  | 20.65    | 4.00 | 18.39    | 5.19 | 9.68     | 2.74 |
|       |       |  | t 값      |      |          |      |          |      |
|       |       |  | 6.45 *** |      | 4.42 *** |      | 2.74 **  |      |
| 연 령   | 10 세  |  | 22.45    | 5.12 | 19.42    | 6.27 | 9.64     | 2.63 |
|       | 13 세  |  | 21.03    | 4.25 | 19.14    | 5.79 | 10.19    | 2.94 |
|       |       |  | t 값      |      |          |      |          |      |
|       |       |  | 4.51 *** |      | .72 N.S. |      | -3.02 ** |      |
| 형 제 수 | 1 명   |  | 22.36    | 5.78 | 19.87    | 5.41 | 9.67     | 2.25 |
|       | 2 명   |  | 21.57    | 4.42 | 19.19    | 5.69 | 9.91     | 2.70 |
|       | 3 명   |  | 21.61    | 5.00 | 19.12    | 6.60 | 9.75     | 2.67 |
|       | 4명 이상 |  | 21.81    | 4.84 | 19.50    | 6.76 | 10.79    | 3.87 |
|       |       |  | F 값      |      |          |      |          |      |
|       |       |  | .63 N.S. |      | .36 N.S. |      | 2.77 *   |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 2) 아동학대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

여기에서는 전술한 변인들과 아동학대와의 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변인들을 상호통제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4-2-16〉과 〈표 4-2-17〉, 〈표 4-2-1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2-16, 17, 18〉은 아동학대에 미치는 전술한 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신체적학대와 제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계별 회귀 분석에 의해 12개의 변인 중 5개의 변인이 신체적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의 다섯 변인인 것으로 규명

〈표 4-2-16〉 신체적학대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갈등적 분위기 | .08***         | .08                   | .21***  |
| 2    | 아동의 성별  | .11***         | .03                   | -.17*** |
| 3    | 아동의 연령  | .13***         | .02                   | -.18*** |
| 4    | 어머니의 교육 | .16***         | .03                   | -.15*** |
| 5    | 전제적 분위기 | .18***         | .02                   | .14***  |

F = 33.48\*\*\*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Beta의 \*\*\*는 T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되었다. 이 다섯개의 변인에 의하여 신체적학대 분산의 18%가 설명되었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련변인 가운데 신체적학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01$ ).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는 신체적학대와 정적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즉 이는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일 때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이 각각 -.18, -.17의 Beta값을 나타내 신체적학대와는 부적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이 남아일수록, 어릴수록 신체적학대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정도 변인은 제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신체적학대와 부적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5,  $P < .001$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은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정의 분위기가 전체적일수록 신체적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 = .14,  $P < .001$ ). 이 다섯개의 변인을 제외한 일곱개의 변인 중 부부의 불화도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제외한 네 개 변인은 신체적학대와의 일차 상관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신체적학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불화도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신체적학대와 일차 상관관계를 보였으나(표 4-2-12), 타변인을 통제한 연후에는 이런 관계가 사라져, 신체적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가정의 분위기와 아동 자신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에 주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7〉 언어적학대의 회귀 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갈등적 분위기 | .09***         | .09                   | .19***  |
| 2    | 부부의 불화도 | .11***         | .02                   | .13***  |
| 3    | 아동의 성별  | .12***         | .01                   | -.11*** |
| 4    | 전제적 분위기 | .13***         | .01                   | .10**   |
| 5    | 어머니의 교육 | .14***         | .01                   | -.07*   |

F=25.20\*\*\*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언어적학대와 일차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인은 부부의 불화도, 가정분위기(갈등적·전제적), 아버지의 직업 지위, 부모의 교육정도, 아동의 성별 등이었다. 〈표 4-2-12〉에서 살펴본 제변인들의 언어적학대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결과 〈표 4-2-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언어적학대의 경우에도 신체적학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갈등적 분위기로써  $\beta$  .19(P<.001)의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언어적학대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부부가 불화할수록 언어적학대가 증가하며, 세번째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 변인으로 남아일수록 언어적인 학

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제적 분위기는  $\beta$  .10의 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신체적학대와 같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언어적인 학대를 많이 사용하는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beta = -.07$ ,  $P < .05$ ). 언어적학대와 일차적으로 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교육 변인은 제변인의 통제 이후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이 변인은 언어적학대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8〉 방임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갈등적 분위기 | .08***         | .08                   | .16*** |
| 2    | 전제적 분위기 | .11***         | .03                   | .15*** |
| 3    | 부부의 불화도 | .12***         | .01                   | .13*** |
| 4    | 아동의 연령  | .13***         | .01                   | .11*** |
| 5    | 아동의 성별  | .14***         | .01                   | -.07*  |

F = 24.65\*\*\*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끝으로 아동학대의 세번째 유형인 방임의 관련변인과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표 4-2-18〉은 방임의 단계별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방임은 12개의 변인 중 10개 변인과 일차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개 변인 중 최종적으로 위의 다섯 변인이 방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단계로 투입된 변인은 신체적학대나 언어적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갈등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있어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 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다섯 변인에 의해 설명된 변량은 14%이다( $P < .001$ ). 방임과 일차적인 관계를 갖고서도 분석에 투입되지

못한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의 변인들과 아동의 형제수 변인이다. 이 세 변인들은 타변인의 영향력을 통제 한 이후에는 방임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각 변인들의 방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가 각각 Beta 값이 .16과 .15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부의 불화도가, 아동의 연령과 성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아동의 성별 변인을 제외하고는 방임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이고 전제적일수록, 부부가 화목하지 못할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은 방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은 Beta가 부정적 방향성을 표시하는데, 이는 남아일수록 많이 방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아동학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그 가정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는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방임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정도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조성하는 가정의 전반적 분위기와 아동의 특성변인인 것으로 밝혀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보다는 그 가정의 화합도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학대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아동학대와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

(연구문제 3)

여기에서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공격성, 부주의, 과잉활동증, 소심증) 및 공감과 아동학대(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어느 변인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 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과 아동학대와의 일차적 상관관계

〈표 4-2-19〉는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과의 단순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4-2-19〉와 같이, 공격성, 부주의, 과잉활동증, 소심증은 모두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 방임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1$ ). 즉 신체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이 방임 당할수록 아동은 공격적이 되며, 주의가 산만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며(Kinard, 1982),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는 소심증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폭력, 즉 신체적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이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와 일치되는 것이며(George & Main, 1979; Reidy, 1977; Green, 1978; Kinard, 1980; McCord, 1979; Wolf & Morse, 1983; 김정준, 1986; 노치영, 1988; 최윤라, 1988), 학대 받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일반적인 기능의 일탈을 나타내며 발달점수가 떨어지고 위축되어 있고 과잉활동증과 같은 정신병적 증후군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Gil, 1971; Fitch, 1975; Martin & Beezeley, 1976; 김정준, 1986).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며,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 역시 반사회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본 연구에서 공감변인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평정

하였으므로, 아동학대와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아동이 신체적·언어적으로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 될수록 아동의 공감수준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4-2-19〉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과 아동학대와의 단순 상관관계

|           | 신체적학대   | 언어적학대   | 방 임     |
|-----------|---------|---------|---------|
| 공 격 성     | .27***  | .36***  | .30***  |
| 부 주 의     | .20***  | .28***  | .24***  |
| 과 잉 활 동 증 | .25***  | .29***  | .20***  |
| 소 심 증     | .18***  | .26***  | .24***  |
| 공 감       | -.11*** | -.22*** | -.22*** |

\* \* \* P <.001

#### 나.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의 관련변인과 영향력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과 아동학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차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변인들의 상호영향력을 통제하여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수준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관련변인

〈표 4-2-20〉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이다.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첫 번째 단계로 투입된 것은 언어적학대 변인으로 13%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P<.001$ ). 두번째로는 방임 변인이, 마지막으로 신체적학대 변인이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17%이다. 아동의 공격성과 아동학대 간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차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제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각 변인들과 공격성간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적학대가 심할수록, 방임을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George & Main, 1979; Reidy, 1977; Green, 1978; Kinard, 1980; McCord, 1979; Wolf & Morse, 1983; 김정준, 1986; 노치영, 1988; 최윤라, 1988)).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폭력행위나 무관심, 욕설 등의 모델링 효과 및 관찰학습의 결과로 보여지며, 결국 폭력의 근원이 가정의 부모 역할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4-2-20〉 공격성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언어적학대   | .13***         | .13                   | .23*** |
| 2    | 방임      | .16***         | .03                   | .17*** |
| 3    | 신체적학대   | .17***         | .01                   | .10*** |

F=52.41\*\*\*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표 4-2-21〉 부주의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언어적학대   | .07***         | .07                   | .21*** |
| 2    | 방임      | .09***         | .02                   | .15*** |

F=52.41\*\*\*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다음으로 집중력이 약하고 주의가 산만한 특성을 갖는 부주의 변인에 대한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표 4-2-21〉에 제시되어 있다. 부주의와의 관

련변인으로 첫번째 단계로 투입된 변인은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언어적학대 변인으로, 7%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P<.001$ ). 다음으로는 방임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아동의 부주의와 단순 상관관계를 나타내던 신체적학대 변인은 타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연후에 그 관계가 사라져 의미있는 설명력 증가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언어적 학대와 방임이 부주의와 + 방향의 Beta값을 보이는 것은 언어적으로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이 많이 될수록 아동의 주의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22〉 과잉활동증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언어적학대   | .08***         | .08                   | .18*** |
| 2    | 신체적학대   | .09***         | .01                   | .13*** |
| 3    | 방임      | .10***         | .01                   | .09*   |

F=39.04\*\*\*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 모두 아동의 과잉활동증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세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력은 10%에 해당한다( $P<.001$ ). 과잉활동증의 회귀분석에서는 언어적학대가 제 1순위로 투입되었으며, 신체적학대, 방임이 그 다음 단계로 투입되었다. 각 변인의 과잉활동증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언어적학대( $\beta=.18$ ,  $P<.001$ )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다른 반사회적 행동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과잉활동증에서는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학대( $\beta=.13$ ,  $P<.01$ ) 정도가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방임 변인( $\beta=.09$ ,  $P<.05$ )이 아동의 과잉활동증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23〉 소심증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언어적학대   | .06***         | .06                   | .19*** |
| 2    | 방임      | .09***         | .03                   | .16*** |

F=28.64\*\*\*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lt;.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끝으로 소심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표 4-2-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신체적학대를 제외한 언어적학대와 방임 두 변인으로 나타났다(P<.001). 부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체적학대는 소심증과 일차적인 정적관계를 갖고 있으나, 타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그 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학대와 방임 두 단계의 투입변인의 설명력은 9%(P<.001)에 해당한다. 두 투입변인의 각각의 소심증에 대한 영향력은  $\beta=.19$ ,  $\beta=.16$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언어적인 학대가 많고 방임이 많이 될수록 아동은 소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반사회적 행동과 각각의 아동학대 유형과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전술한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에는 언어적학대, 방임, 신체적학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부주의와 소심증에는 언어적학대와 방임만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유형의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모두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변인은 언어적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동이 언어적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많이 유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아동의 공감의 관련변인

〈표 4-2-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 세 변인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공감과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번째 단계로는 언어적학대가, 두번째 단계로는 방임이 투입되어 총 6%의 설명

력을 보여 주어, 신체적학대는 아동의 공감수준과 일차 단순 상관관계가 있으나, 타변인의 통제 후 관계가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두 변인, 즉 언어적학대와 방임은 모두  $\beta = -.15$  ( $P < .001$ )로 거의 비슷한 부적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언어적학대와 방임을 많이 겪을수록 아동의 공감수준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공감이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인지적, 정의적 반응이라고 할 때,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동은 타인에게도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되어 공감발달이 저하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Barahal, Waterman & Martin, 1981; Straker & Jacobson, 1981; 최원라, 1988).

〈표 4-2-24〉 공감의 회귀분석

| STEP | Entered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Beta    |
|------|---------|----------------|-----------------------|---------|
| 1    | 언어적학대   | .04***         | .04                   | -.15*** |
| 2    | 방임      | .06***         | .02                   | -.15*** |

F=52.41\*\*\*

R<sup>2</sup>의 \*\*\*는 F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Beta의 \*\*\*는 T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 4. 아동학대와 관련변인 및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문제 4)

본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정환경에 관한 변인과 아동 개인에 관한 변인을 선행변인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반사회적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환경 변인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부모의 교육, 직업과 같은 변인을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관한 변인으로, '부부사이의 불화',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와 같은 변인을 가정의 분위기변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개별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5가지 하위차원인 ‘공격성’, ‘부주의’, ‘과잉활동증’, ‘소심증’, ‘공감’<sup>1)</sup>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방법 중 위계적 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반사회적 행동 중 비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위차원은 공격성일 것이다. 청소년비행 중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폭력적인 비행의 대부분이 공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공격적인 아동은 상황에 따라 폭력적인 비행에 쉽게 말려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 4-2-25〉는 여러 독립변인들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Hierarchical) 중다회귀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변인들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아 제일 먼저 도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의 분위기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별, 나이, 형제수와 같은 아동에 관한 변인이 추가되었다.

〈표 4-2-25〉를 보면, 신체적학대를 비롯한 학대변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18%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세가지 학대유형 중 공격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대유형은 언어적학대이며, 그 다음으로 방임, 신체적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변인에다 가정의 분위기변인을 추가시킨 두번째 단계의 결과를 보면,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부간의 불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학

---

1)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결여된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표 4-2-25〉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 1-Step | 2-Step | 3-Step | 4-Step  |
|------------------|--------|--------|--------|---------|
| R <sup>2</sup>   | .18*** | .25*** | .26*** | .29**   |
| 신 체 적 학 대        | .14*** | .09*   | .09*   | .08*    |
| 언 어 적 학 대        | .23*** | .18*** | .19*** | .18***  |
| 방            임   | .18*** | .11*** | .12*** | .10**   |
| 부 부   불 화 도      |        | N.S.   | N.S.   | N.S.    |
| 갈 등 적 분 위 기      |        | .23*** | .22*** | .22***  |
| 전 제 적 분 위 기      |        | .11*** | .12*** | .10**   |
| 아 버 지 직 업        |        |        | N.S.   | N.S.    |
| 아버지 실업 여부        |        |        | N.S.   | N.S.    |
| 어머니 작업 유무        |        |        | N.S.   | N.S.    |
| 아 버 지 교 육        |        |        | N.S.   | N.S.    |
| 어 머 니 교 육        |        |        | .10*   | .10*    |
| 친 부 모   여 부      |        |        | N.S.   | N.S.    |
| 성            별   |        |        |        | -.14*** |
| 연            령   |        |        |        | .08*    |
| 형            제 수 |        |        |        | N.S.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대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정의 분위기변인이 추가된 뒤 조금씩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정분위기 변인의 간접효과가 학대변인에서 제외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가정의 구조적 변인, 즉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 변인들 중에서는 어머니 교육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교육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때, 예상과는 다른 방향성이 발견된다. 어머니 교육의 표준편회기계수를

보면, +.10이다. 즉 어머니 교육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비행 중 재산비행을 제외하면 중산층 청소년들의 비행이 하층보다 더 높다는 보고가 많다(김준호, 1990). 아마도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해석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개인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 보다는 공격성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공격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공격성에는 가정의 분위기변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갈등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공격적인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적인 학대를 위시한 학대변인이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이 공격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동이 더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면, 하층 아동들이 더 거칠다는 사회적인 통념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나. 부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제변인들이 아동의 부주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4-2-26>과 같다. 먼저 학대변인들의 부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신체적인 학대( $P<.05$ ), 언어적학대( $P<.001$ ), 방임(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언어적인 학대가 크면 클수록, 방임을 하면 할수록 아동들의 주의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 학대변인에다 가정의 분위기변인을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 사이에서의 불화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갈등적인 분위기와 전제적인 분위기는 모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 4-2-26〉 부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 1-Step | 2-Step | 3-Step | 4-Step |
|--------------------|--------|--------|--------|--------|
| R <sup>2</sup>     | .10*** | .13*** | .14*** | .15*** |
| 신 체 적 학 대          | .08*   | N.S    | N.S.   | N.S    |
| 언 어 적 학 대          | .17*** | .13*** | .13**  | .13*** |
| 방            임     | .15*** | .10*** | .10*** | .09**  |
| 부 부   불 화 도        |        | N.S.   | N.S.   | N.S.   |
| 갈 등 적   분 위 기      |        | .11**  | .10**  | .10**  |
| 전 제 적   분 위 기      |        | .11*** | .11*** | .10**  |
| 아 버 지   직 업        |        |        | N.S.   | N.S.   |
| 아버지 실업 여부          |        |        | N.S.   | N.S.   |
| 어머니 직업 유무          |        |        | .10*   | N.S.   |
| 아 버 지   교 육        |        |        | N.S.   | N.S.   |
| 어   모   니   교 육    |        |        | N.S.   | N.S.   |
| 친 부 모   여 부        |        |        | N.S.   | N.S.   |
| 성            별     |        |        |        | N.S.   |
| 연            령     |        |        |        | .14*** |
| 형            제   수 |        |        |        | N.S.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이거나 전체적일수록 아동의 부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신체적학대는 가정분위기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동의 부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정분위기 변인이 포함된 연후에는 신체적학대가 아동의 부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분위기변인과 학대변인과의 상호통제에 의해 신체적학대 변인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부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신체적학대 그 자체보다는 가정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아동의 부주의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변인을 추가한 4-Step 결과를 보면, 전체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 아동의 부주의는 15%에 이르고 있으며, 신체적학대를 제외한 학대유형과 가정의 갈등적·전제적 분위기가 아동의 부주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만이 관계가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주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부주의에는 가정의 분위기 변인과 아동학대 변인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은 영향력이 없고, 아동의 연령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과잉활동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의 과잉활동증과 독립변인들과의 관계 역시 다른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방임등의 학대변인이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특히 언어적인 학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분위기 면은 아동의 과잉활동증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학대변인에 비하여 그다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가정의 분위기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공격성과는 달리  $R^2$ 가 그다지 변하지 않는 점에서 유추될 수 있다.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부모간의 불화 그 자체는 영향력이 없으나 전반적인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인 분위기는 아동을 과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다른 하위 차원과 같이 영향력이 없으며,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만이 관계가 있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 보다는 더 과잉활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27〉 과잉활동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 1-Step | 2-Step | 3-Step | 4-Step |
|----------------|--------|--------|--------|--------|
| R <sup>2</sup> | .11*** | .12*** | .13*** | .14*** |
| 신 체 적 학 대      | .12*** | .10**  | .10**  | .08*   |
| 언 어 적 학 대      | .19*** | .17*** | .17*** | .17*** |
| 방 임            | .10**  | .07*   | .07*   | .07*   |
| 부 부 불 화 도      |        | N.S.   | N.S.   | N.S.   |
| 갈 등 적 분 위 기    |        | .10**  | .10**  | .10*   |
| 전 제 적 분 위 기    |        | .08*   | .08*   | .08*   |
| 아 버 지 직 업      |        |        | N.S.   | N.S.   |
| 아버지 실업 여부      |        |        | N.S.   | N.S.   |
| 어머니 직업 유무      |        |        | N.S.   | N.S.   |
| 아 버 지 교 육      |        |        | N.S.   | N.S.   |
| 어 머 니 교 육      |        |        | N.S.   | N.S.   |
| 친 부 모 여 부      |        |        | N.S.   | N.S.   |
| 성 별            |        |        |        | -.11** |
| 연 령            |        |        |        | N.S.   |
| 형 제 수          |        |        |        | N.S.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 라. 소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 4-2-28〉은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소심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결과이다. 우선 학대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신체적인 학대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으며, 언어적학대와 방임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인 학대가 크면 클수록, 방임을 하면 할수록 아동들은 불안해하며 소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에 관련된 변인에다 가정의 분위기변인을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

〈표 4-2-28〉 소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 1-Step | 2-Step | 3-Step | 4-Step |
|------------------|--------|--------|--------|--------|
| R <sup>2</sup>   | .10*** | .15*** | .16*** | .17*** |
| 신 체 적 학 대        | N.S.   | N.S.   | N.S.   | N.S.   |
| 언 어 적 학 대        | .16*** | .13*** | .12**  | .12*** |
| 방            임   | .18*** | .13*** | .13*** | .12**  |
| 부 부   불 화 도      |        | N.S.   | N.S.   | N.S.   |
| 갈 등 적   분 위 기    |        | .12**  | .12**  | .12**  |
| 전 제 적   분 위 기    |        | .15*** | .16*** | .16*** |
| 아 버 지   직 업      |        |        | N.S.   | N.S.   |
| 아버지 실업 여부        |        |        | N.S.   | N.S.   |
| 어머니 직업 유무        |        |        | .10*   | .10*   |
| 아 버 지   교 육      |        |        | N.S.   | N.S.   |
| 어 머 니   교 육      |        |        | -.12*  | .10*   |
| 친 부 모   여 부      |        |        | N.S.   | N.S.   |
| 성            별   |        |        |        | N.S.   |
| 연            령   |        |        |        | .12*** |
| 형            제 수 |        |        |        | N.S.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사이의 불화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갈등적인 분위기와 전제적인 분위기는 모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록 자녀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의 불화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난 결과는 아마도 부부간의 불화가 갈등적 분위기와 연관이 커서 갈등적 분위기를 통제한 뒤에 부부간의 불화만의 영향력이 축소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관계된 변인은 관계가 없으나 어머니와 관계된 변인들은 아동의 소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녀들은 더 불안해 하며,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불안해 하고 있다. 소심증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이나 형제수와는 관계가 없으나, 연령과는 관계가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들과 거의 비슷하다. 즉 가정의 분위기변인과 아동학대 변인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은 비교적 영향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교육은 관계가 있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소심해 하는가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마.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러 독립변인들의 공감에 대한 영향력은 〈표 4-2-29〉에 제시되었다. 우선 학대변인과 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학대는 공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언어적인 학대와 방임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으로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녀를 방임하면 할수록 자녀의 공감발달이 지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대변인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공격성 보다는 작은 7% 수준으로 밝혀졌다. 가정의분위기변인들을 추가하면 공감발달을 설명하는 정도가 11% 정도로 늘어나며, 이 변인 중 관계가 있는 것은 갈등적 분위기와 아동부모간의 불화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간에 화합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분위기, 특히 부모간의 불화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인 공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공감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는 공감이 발달하였으며, 저학년일수록 공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Iannotti, 1978; 연진영, 1987).

〈표 4-2-29〉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 1-Step  | 2-Step  | 3-Step  | 4-Step  |
|------------------|---------|---------|---------|---------|
| R <sup>2</sup>   | .07***  | .11***  | .11***  | .13***  |
| 신 체 적 학 대        | N.S.    | N.S.    | N.S.    | N.S.    |
| 언 어 적 학 대        | -.19*** | -.15*** | -.16*** | -.15*** |
| 방            임   | -.14*** | -.10**  | -.10**  | -.09*   |
| 부 부   불 화 도      |         | N.S.    | -.08*   | -.10**  |
| 갈 등 적 분 위 기      |         | -.17*** | -.17**  | -.17*** |
| 전 제 적 분 위 기      |         | N.S.    | N.S.    | N.S.    |
| 아 버 지 직 업        |         |         | N.S.    | N.S.    |
| 아버지 실업 여부        |         |         | N.S.    | N.S.    |
| 어머니 직업 유무        |         |         | N.S.    | N.S.    |
| 아 버 지 교 육        |         |         | N.S.    | N.S.    |
| 어 머 니 교 육        |         |         | N.S.    | N.S.    |
| 친 부 모 여 부        |         |         | N.S.    | N.S.    |
| 성            별   |         |         |         | .09**   |
| 연            령   |         |         |         | -.10**  |
| 형            제 수 |         |         |         | N.S.    |

\* P&lt;.05   \*\* P&lt;.01   \*\*\* P&lt;.001   N.S. Not Significant

공감과 여러 변인들과의 전반적인 관계는 공격성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가정의 분위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며, 그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아동학대 역시 공감발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관계가 없으며, 여아가 남아보다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공감이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가정의 분위기와 아동학대가 본 연구의 예상과 같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5가지 하위 차원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에 관련

된 변인 중에서는 언어적인 학대가 다른 유형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인 학대는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에는 영향을 주나, 공감과 소심증과 부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3가지 학대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적은 변인으로 보인다. 방임은 모든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언어적인 학대보다는 거의 예외없이 영향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의 악의없는 '욕설'과 '협박'이 아동들에게 신체적인 학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놀라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가정의 영향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면은 어머니에 관련된 교육과 직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반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정의 분위기 측면은 가장 강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변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볼 때, 가정의 화목하지 못한 분위기가 가족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족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에 대응할 만한 기술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녀구타 등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집안식구들 사이의 화목한 분위기가 아동의 행동발달에 가장 중요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중 아버지의 직업, 교육과 같은 변인이 어느 행위유형과도 연관이 없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의 중요성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 줄 뿐 아니라, 「문제아동은 하층에서 나온다」라는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보다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비롯한 가정의 분위기와 아동에 대한 사랑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개인적인 변인 중, 성별과 연령은 관계가 있으나 형제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아가 남아보다는 덜 공격적이며, 공감은 더 발

달하였으며, 보다 더 차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공격적이며, 타인과의 공감은 덜하나 더 소심하며 부주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5개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하위차원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전체로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제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사회적 행동의 5개 하위차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30〉과 같다.

〈표 4-2-30〉 반사회적 행동의 요인 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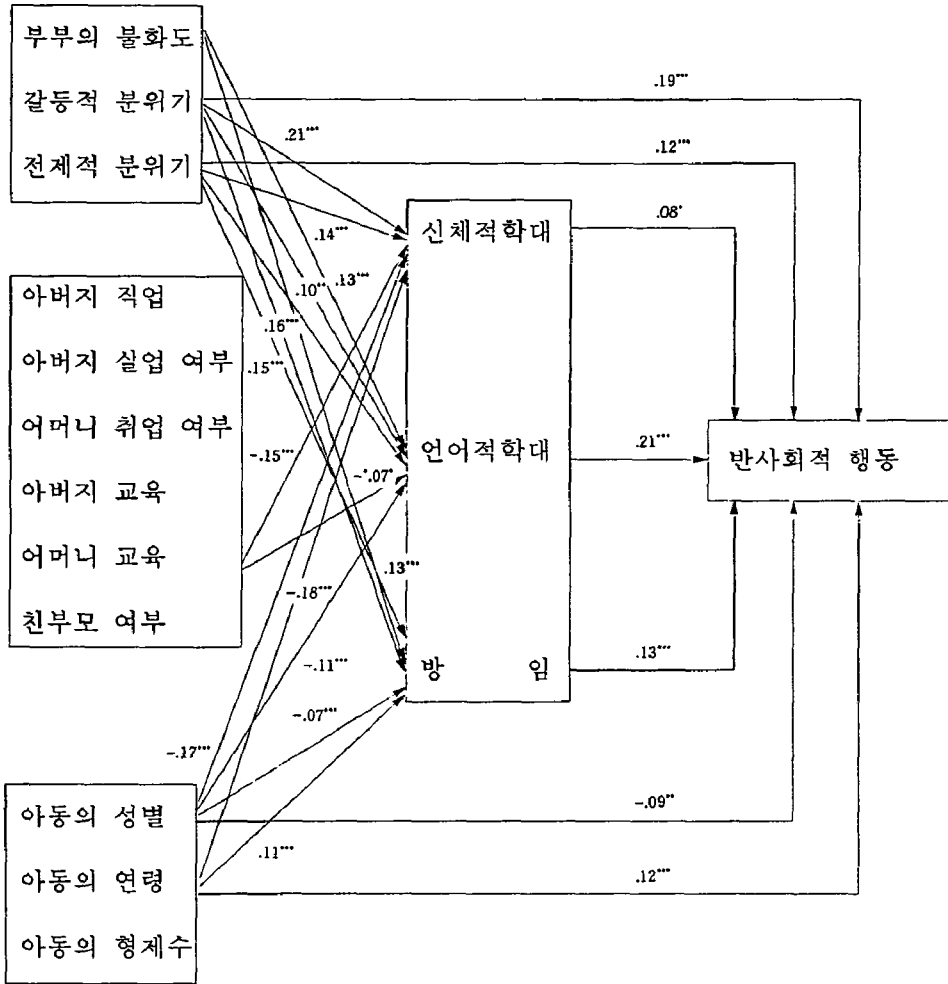
|       | 요인 1 | Communality |
|-------|------|-------------|
| 공격성   | .78  | .62         |
| 부주의   | .73  | .55         |
| 과잉활동증 | .77  | .59         |
| 소심증   | .63  | .40         |
| 공감    | -.62 | .40         |

Eigen value                      2.55 (51.1%)

〈표 4-2-30〉을 보면 다섯 개의 하위 차원이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개의 하위차원은 하나의 요인, 즉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대변인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환경에 관한 변인과 아동 자신에 대한 변인을 선행변인으로 한 경로 분석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변인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 변인 중 부부의 불화도를 포함한 가정분위기 변인들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 이 중 ‘부부의 불화’는 학대변인 중 ‘언어적학대’와 ‘방임’에는 연관이 있으나 ‘신체적



$R^2 = .30^{***}$

\*  $P < .05$  에서 유의미 \*\*  $P < .01$  에서 유의미 \*\*\*  $P < .001$ 에서 유의미

〈그림 2〉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변인의 경로분석

학대'와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부부의 불화도'는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대변

인을 통제한 후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는 아동학대의 3가지 유형인 ‘신체적학대’, ‘방임’, ‘언어적학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가정의 분위기는 학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직접적으로도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적 분위기는 학대변인에는 물론 반사회적 행동에도 어느 독립변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화목한 분위기가 아동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 주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6개의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인은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도 연관이 없다. 즉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직접·간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와 연관이 되어 있으나 반사회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 즉 반사회적 행동에 신체적학대나 방임을 통한 간접효과는 있으나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반사회적 행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성별’, ‘연령’, ‘형제수’ 중 성별과 연령은 아동학대는 물론 반사회적 행동과도 연관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학대는 덜 받으나 방임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변인과 반사회적 행동간에는 언어적학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방임, 신체적학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정의 분위기와 아동학대 변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가정의 분위기 면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이 가장 중요하며, 학대변인중에서

는 언어적인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교육이 간접적으로만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되었을 뿐 나머지 변인들은 간접적인 효과마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갈등적인 분위기와 언어적학대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그 영향을 밝히고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4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국민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실태를 밝히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아동학대와 관련된변인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련 여부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 몇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아동학대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자체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나 어떠한 형태의 구타라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을 12%에 불과하였다. 상해위험이 큰 구타 행위일수록 한번도 당한 적이 없는 아동을 늘어나서 상해의 정도에 따라 77.5%에서 98.5%의 아동이 전혀 심하게 매를 맞거나 손상을 입은 적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정상가정의 아동들은 심한 구타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조사결과에 나타난 수치로 보아 가벼운 정도의 구타나 매를 훈육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가정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으로 지짐을 당한 경우’와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칼에 찔린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상해위험이 있는 신체적학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발생비율에 관계없이 이러한 유형의 학대가 한 건이라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상해의 위험이 있는 유형의 학대는 단 한번만으로도 아동의 신체적 손상을 초

래할 수 있고 나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아동의 경우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모와의 상담이나 개인적 치료를 통한 일대일의 개입이 필요하다.

언어적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욕이라 말할 수 있는 유형의 표현들과 아동의 존재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실존에 관한 욕을 합하여 적어도 12%의 아동이 언어적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다. 방임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신체적 방임을 경험하기보다는 교육적 방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이 아동의 신변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동의 교육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러한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변인은 가정 환경중 가정의 갈등적, 전제적 분위기와 부부의 불화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 변인으로서,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사회의 통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가족원이 이루어 가는 화합도나 분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하층이라는 구조의 특색의 일환으로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분위기가 갈등적일 때 가족원의 긴장과 분노, 욕구불만등이 팽배하여 에너지 분출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인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을 말해준다. 이는 또한 한 가정의 분위기와 화합의 장본인이 부부임을 생각해 볼때 부부간의 갈등과 반목이 자녀 학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는 희생물이 될 수 있다.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 분위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 자신의 성별과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여아보다는 남아가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신체적학대는 적게, 방임은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더 넓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째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 중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은 아동학대의 세가지 유형, 즉 신체적학대·언어적학대·방임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신체적학대와 언어적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와 소심증, 공감의 경우에는 신체적학대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언어적학대와 방임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적학대보다도 우리가 흔히 학대라 생각하지 않기 쉬운 언어적학대와 방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언어적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경미한 구타를 당하는 아동이 일부 나타났고, 심한 손상을 입힐 정도의 구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학대는 언어적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반면, 양육자는 이를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족원들간의 무심코 던지는 아동에 대한 욕설이나, 습관적인 구박이 오히려 아동에게 정서적 상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었다. 가족 구성원들이나 사회 성원들이 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언어적학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결과이다.

네째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정의 분위기(갈등적·전제적 분위기)변인과 아동학대 변인, 아동 자신의 성별 및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와 아동학대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는 아동학대를 일으키고 아동학대는 다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가정분위기는 직접적으로도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증가하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어머니의 교육 변인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간접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속하는 가정에서 양육받는 아동들이 더 빈번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는 하층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반면 아동양육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의 분위기와 아동학대가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결국은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본 연구결과는 비행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의 화합증진과 아동학대의 발생 방지를 위해 청소년비행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에 관계 없이 아동에게 신체적·언어적학대가 반복되어 아동이 심리적 손상을 입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게되면 심한 경우 비행·가출등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자신의 욕구불만이나 분노의 통제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녀 훈육의 실제 및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를 통한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시켜서 그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가지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 감이 없지 않아 부모의 때까지도 학대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성적학대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학대 영역을 분류하고, 학대의 강도와 빈도까지 포함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학대의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처벌의 한계를 구분해서 연구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이 왜곡,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학대를 그 강도에 관계없이 동등한 점수를 준 것에 문제가 있다. 단 한번의 구타라도 심한 신체적 손상을 주는 학대와 가볍게 맞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는 집단적 접근과 함께 아동의 행동 관찰, 사례연구, 면접 등을 통한 개별 접근이 필요하다.

세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대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므로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학대의 영역별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네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분위기 변인이 아동학대 발생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관련이 큰 변인임을 밝혔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대하는 부모의 인성 특성 및 아동 자신의 기질 등 심리적 변인을 더 도입해서 탐색할 것이 요망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의 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직접·간접적 원인이 됨을 밝혔다. 특히 가정의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인 가정의 분위기가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과, 학대의 유형 중 언어적학대가 특히 아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제시와 아동의 비행 방지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2).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7(3), 161-171.
- 권은주(1977).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이대 사회 사업학과 석사 논문.
- 권자영(1991). 학대가 아동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 소아 청소년 정신 의학회 1991년도 춘계 학술대회.
- 김광일 편(1988). 가정 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 김광일, 고복자(1987). 아동 구타 발생을 조사, 정신 건강 연구 제 6집, 한양대 정신 건강 연구소.
-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 논문.
-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영(1989).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제 16집, 서울 시립 아동 상담소.
- 노치영(1988). 가정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대 가정관리학과 석사 논문.
- 소숙희(1986).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대 석사 논문.
- 송은일(1991). 한국의 아동학대 실상에 대한 연구, 생활문화 연구소 제 15권, 성신여대.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 복지학과 석사 논문.
-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 건강 연구 제 6집,

한양대 정신 건강 연구소.

-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 발달 및 관련 변인,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유춘식(1987). 아동의 권익 보호 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4, 7-36.
-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 환경 분석 연구, 숙대 아동 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영숙(1984). 부부 갈등과 아동학대, 군산대학 논문집 제 7권.
- 이재연(199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탐색, 대한 소아 청소년 정신 의학회 춘계 학술 회의.
- 주영희(1985). 가출 아동을 통한 학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 복지 80호.
- 최윤라(1988). 학대 받은 아동과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대 아동 복지학과 석사 논문.
- Brown, K. & Sagi, S. (1987). Parent-child interaction in abusing families : its possible causes and consequences. In P.Maher(ed.), *Child abuse*. Oxford : Basil Blackwell, 77-103.
- Burgess, R. & Conger, R.(1978).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ful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 1163-1173.
- Creighton, S.T. (1988). Quantitative assessment of child abuse. In *Child abuse*, P.Maher(ed.), Oxford : Basil Blackwell.
- Finkelhor, D., Gelles, R., Hotaling, G. & Straus, M.(1983). *The dark side of families*. Sage publication.
- Garbarino, J. (1989).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Family violence*. Lloyd Oblin & Michael Tonry(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barino, G.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21-735.

Gerald, Hotaling, Finkelhor, D., Kirkpatrick, J. & Straus, M.(ed.) (1988).

*Coping with family violence* - Research, policy perspectives-.

Sage publications.

Gelles, G. & Conte(1991).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buse of childrens.

A review of research in eighties. *In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Minnesota; NCFR.

Gil, D.G. (1975). Unrevealing child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43, 611-621.

\_\_\_\_\_ (1979). *Child abuse and violence*. Ams press Inc. New York.

\_\_\_\_\_ (1979).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Child abuse and violence*, D.Gil (ed.), Ams press Inc. New York.

Giovannoni, J.M.(1976). Parental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victi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49-657.

Green, A.H.(1978). Psychopathology of abu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iatry*, 17, 92-103.

Helfer, R. & Kempe, H.(1974). *The battered child*. 1st.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ffman-plotkin, D. & Twenty man, C.T.(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Johnson, B. & Morse, H.A.(1968). Inju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 15, 147-152.

Madge, N. (1983). Unemployment and its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4(2), 311-319.

Maher, P.(1987). *Child abuse*. The educational perspective. Basil Blackwell.

- McGee, R., Williams, S., & Silva, P.(1985).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es of ratings of intention, hyperactivity and antisocial behavior in a large sample of 1 year old children from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4), 480-490.
- Mussen, P., Conger, J., Kagan, J. & Huston, A.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 Oates, K.(ed.) (1982). *Child abuse -a community concern-*. Butler worths.
- Oblin, Lloyd & Michael, T.(1989). *Family viol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enberg, M. & Reppucci, D. (1985). Primary prevention of child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 576-585.
- Ruth, S. & Kempe, H. (1978). *Child abuse*. Harvard university press.
- Straker, G. & Jacobson, R.S.(1981). Aggression, emotional maladjustment, and empathy in the abused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762-765.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Trickett, P. & Kuczynski, L. (1986). Children's misbehavior and parental discipline strategies in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15-123.
- Wolfe, D. & Mosk, M. (1983). Behavioral comparisons of children from abusive and distressed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5), 702-708.

##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CONSEQUENCES

Yon, Jin Young\*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to explore the related variables between child abuse and antisocial behavior.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fined child abuse broadly as any parental behavior which was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injurious to a child including physical abuse, verbal abuse and neglect.

The survey included 978 subjects, composed of 9 and 12 year-old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study consisted of a four part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assess child abuse, home environment, socio-economic status,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ajority of children from normal families do not seem to be seriously abused. However, even though it was rare, some cases of severely abused children were noted. This exception should not be neglected.

The subject of child abuse must be studied considering the frequency as well as the intensity or magnitude.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Sangmyung Women's University.

2. It was found that boys were more abused than girls. Additionally, physical abuse and neglec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s age; the older children were more neglected than the younger ones, and conversely, physical abuse was more prevalent among the younger than the older ones.
3. The home environment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n all types of child abuse.
4.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abuse. However,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was the only variable affecting child abuse.
5. Among three types of child abuse, verbal abuse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contributing to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To summarize, home environment and verbal abuse were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ly related variables to antisocial behavior of childre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should be performed to investigate child abuse, including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parental characteristics,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al dynamics.

# 〈부록〉

\_\_\_\_\_학년\_\_\_\_\_반\_\_\_\_\_번

##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질문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매일의 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예요.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연  
 구를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  
 어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성적에  
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자신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담임 선생님께 여쭙보세요. 여러분  
 한 문제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991. 11

## 제 1 부

◇ 어린이 여러분, 아래 문항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아래의 예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문제를 잘 읽고 동그라미로 대답해 주세요.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1. 우리집 식구들은 자기 뜻대로 안되면 집을 나가버린다       | 1         | 2                | 3         | 4   |
| 2. 우리집 식구들은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 1         | 2                | 3         | 4   |
| 3. 우리집에서는 자기 생각을 감히 어른에게 말할 수 없다      | 1         | 2                | 3         | 4   |
| 4. 우리집은 화목하다                          | 1         | 2                | 3         | 4   |
| 5. 우리집 식구들은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다            | 1         | 2                | 3         | 4   |
| 6. 우리집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한다           | 1         | 2                | 3         | 4   |
| 7. 우리집에서는 무엇이든지 나이 순서대로 한다            | 1         | 2                | 3         | 4   |
| 8. 우리집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야단 맞는다 | 1         | 2                | 3         | 4   |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9. 우리집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른이 시키는<br>대로 해야 한다 | 1         | 2                | 3         | 4   |
| 10. 우리집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 1         | 2                | 3         | 4   |
| 11. 우리집 식구는 서로 믿지 못한다               | 1         | 2                | 3         | 4   |
| 12. 우리집 식구는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 1         | 2                | 3         | 4   |
| 13. 우리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잘 싸운다            | 1         | 2                | 3         | 4   |
| 14.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                     | 1         | 2                | 3         | 4   |
| 15.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다                | 1         | 2                | 3         | 4   |

## 제 2 부

1. 성별 (            )                      1) 남자 어린이                      2) 여자 어린이
2. 학년 (            )                      1) 3학년                                  2) 6학년
3. 번호 (            )
4. 나이 (            )                      1) 9살      2) 10살      3) 11살      4) 12살  
5) 13살      6) 기타 \_\_\_\_\_ 살
5. 아버지가 계십니까? (            )  
① 친아버지가 계시다    ② 계부가 계시다(의붓아버지)    ③ 안 계시다
6. 어머니가 계십니까? (            )  
① 친어머니가 계시다    ② 계모가 계시다(의붓어머니)    ③ 안 계시다
7. 부모님 두분 중 한 분만 안 계시거나 모두 안 계실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돌아 가셨다                      ② 이혼 하셨다                      ③ 별거 하신다
8. 여러분, 여러분은 몇 남 몇 녀 중 몇 째십니까? ( \_\_\_\_\_ 남 \_\_\_\_\_ 여  
중 \_\_\_\_\_ 째)
9. 가족의 한달 평균 총 수입 (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③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⑤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⑥ 200만원 이상

## 10. 아버지의 직업 (            )

- ① 무직
- ② 단순 노동(일일 잡역부, 소규모 농업)
- ③ 반숙련직(이발사, 요리사, 수금원, 상점점원, 농업)
- ④ 숙련직(숙련 기능공, 목수, 작업반장, 집배원, 운전기사)
- ⑤ 판매직(소도매상, 부동산 중개업, 소규모 자영업자, 가게주인, 개인택시 운전)
- ⑥ 사무직(회사일반사원, 위관급장교, 6·7·8·9급 공무원, 국민학교 교사)
- ⑦ 관리직(중소·대기업의 과장, 부장급, 영관급장교, 4·5급 공무원, 소규모 기업주, 중·고등학교 교사, 고급기사)
- ⑧ 전문직(대기업주, 의사,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교수, 장성급 군인, 예술가, 언론인, 대기업 이사급)

## 11. 어머니의 직업 (            )

- ① 가정주부
- ② 단순 노동(일일 잡역부, 소규모 농업)
- ③ 반숙련직(이발사, 요리사, 수금원, 상점점원, 농업)
- ④ 숙련직(숙련 기능공, 목수, 작업반장, 집배원, 운전기사)
- ⑤ 판매직(소도매상, 부동산 중개업, 소규모 자영업자, 가게주인, 개인택시 운전)
- ⑥ 사무직(회사일반사원, 위관급장교, 6·7·8·9급 공무원, 국민학교 교사)
- ⑦ 관리직(중소·대기업의 과장, 부장급, 영관급장교, 4·5급 공무원, 소규모 기업주, 중·고등학교 교사, 고급기사)
- ⑧ 전문직(대기업주, 의사,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교수, 장성급 군인, 예술가, 언론인, 대기업 이사급)

12. 아버지의 학력 (            )

- ① 무학    ② 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13. 어머니의 학력 (            )

- ① 무학:    ② 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 제 3 부

◇ 여러분, 아래 질문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할머니, 할아버지)이 여러분이 잘못을 했거나, 여러분을 야단치실 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잘 생각해서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큰 번호에 동그라미를 할수록 여러분이 집에서 그러한 일을 많이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질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1. 손바닥, 종아리,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맞았다 | 1                  | 2                           | 3                          | 4                           |
| 2.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았다            | 1                  | 2                           | 3                          | 4                           |
| 3.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맞았다              | 1                  | 2                           | 3                          | 4                           |
| 4. 회초리로 맞았다                    | 1                  | 2                           | 3                          | 4                           |
| 5.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 1                  | 2                           | 3                          | 4                           |
| 6. 굵은 막대기, 몽둥이로 맞았다            | 1                  | 2                           | 3                          | 4                           |
| 7. 혁대로 맞았다                     | 1                  | 2                           | 3                          | 4                           |
| 8.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 1                  | 2                           | 3                          | 4                           |
| 9. 찬물을 끼얹었다                    | 1                  | 2                           | 3                          | 4                           |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10. 던진 물건(재털이, 책, 그릇, 의자 등)<br>에 맞았다 | 1                  | 2                           | 3                          | 4                           |
| 11.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으로 지짐을 당했다            | 1                  | 2                           | 3                          | 4                           |
| 12. 꼬집히거나 할퀴를 당했다                    | 1                  | 2                           | 3                          | 4                           |
| 13.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했다                    | 1                  | 2                           | 3                          | 4                           |
| 14. 칼에 찔렸다                           | 1                  | 2                           | 3                          | 4                           |
| 15. 팔, 다리가 묶였었다                      | 1                  | 2                           | 3                          | 4                           |
| 16. 방, 다락, 창고 등에 갇혔었다                | 1                  | 2                           | 3                          | 4                           |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어머니(또는 父)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어떤 기분이 되시나요?

|                                       | 한번도<br>없었다 | 드물게<br>있었다 | 가끔<br>있었다 | 자주<br>있었다 |
|---------------------------------------|------------|------------|-----------|-----------|
| 1. 어머니(또는 父)에 대해 증오심을 느낀다             | 1          | 2          | 3         | 4         |
| 2. 어머니(또는 父)가 친엄마(또는 친父)가<br>아닌가 생각한다 | 1          | 2          | 3         | 4         |
| 3.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 1          | 2          | 3         | 4         |

|                                      | 한번도<br>없었다 | 드물게<br>있었다 | 가끔<br>있었다 | 자주<br>있었다 |
|--------------------------------------|------------|------------|-----------|-----------|
| 4. 죽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 1          | 2          | 3         | 4         |
| 5.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낀다                     | 1          | 2          | 3         | 4         |
| 6. 내가 필요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 1          | 2          | 3         | 4         |
| 7. 차라리 어머니(또는 父)가 없었으면 좋<br>겠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8. 기분이 몹시 나쁘다                        | 1          | 2          | 3         | 4         |
| 9. 억울하고 분하다                          | 1          | 2          | 3         | 4         |
| 10. 화가 난다                            | 1          | 2          | 3         | 4         |
| 11. 서럽고 슬프다                          | 1          | 2          | 3         | 4         |
| 12. 어머니(또는 父)가 미워지고 싫어진다             | 1          | 2          | 3         | 4         |
| 13. 마구 대들고 싶다                        | 1          | 2          | 3         | 4         |
| 14.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 1          | 2          | 3         | 4         |

◇ 여러분,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맞았을 때  
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유형의 상처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있  
었습니까? 동그라미로 답해 주세요. 아래 예들 이외의 경우가 있었다  
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1. 멍이 들었다                        | 1                  | 2                           | 3                          | 4                           |
| 2. 빨간 자국, 깨문 자국, 할퀴 상처 등이<br>생겼다 | 1                  | 2                           | 3                          | 4                           |
| 3. 맞은 부위가 몹시 부었다                 | 1                  | 2                           | 3                          | 4                           |
| 4. 피가 났다                         | 1                  | 2                           | 3                          | 4                           |
| 5. 이가 흔들리거나 부러졌다                 | 1                  | 2                           | 3                          | 4                           |
| 6.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다                | 1                  | 2                           | 3                          | 4                           |
| 7. 머리를 맞아 두통에 시달렸다               | 1                  | 2                           | 3                          | 4                           |
| 8. 고막이 터졌었다                      | 1                  | 2                           | 3                          | 4                           |
| 9. 손가락 혹은 팔, 다리를 빼앗겼다            | 1                  | 2                           | 3                          | 4                           |
| 10. 뼈가 부러졌다                      | 1                  | 2                           | 3                          | 4                           |
| 11.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 1                  | 2                           | 3                          | 4                           |
| 12. 담뱃불 또는 뜨거운 것에 데었다            | 1                  | 2                           | 3                          | 4                           |
| 13. 배를 채여 창자가 터졌다                | 1                  | 2                           | 3                          | 4                           |
| 14. 불구나 병신이 되었다                  | 1                  | 2                           | 3                          | 4                           |
| 15. 기타                           | 1                  | 2                           | 3                          | 4                           |

◇ 어린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때리는지에 대해 답해 주세요

1. 평상시에 여러분을 가장 자주 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친척    ⑥ 형제    ⑦기타\_\_\_\_\_

2. 여러분을 때리는 사람중에서 가장 심하게 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친척    ⑥ 형제    ⑦기타\_\_\_\_\_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잘못했다든가, 바쁘실 때에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수 있는 일들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그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솔직하게 동그라미로 답해 주세요.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1. 내가 위험한 것(예 : 칼, 쇠파창이 등)을    1        2        3        4  
가지고 놀아도 상관치 않는다

2. 내가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    1        2        3        4  
는다

3. 학용품이 다 떨어진 것을 모르거나 잘    1        2        3        4  
사주지 않는다

4. 내가 숙제를 해 가는지 안 해가는지 잘    1        2        3        4  
모른다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5.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치 않는다         | 1                  | 2                           | 3                          | 4                           |
| 6. 학교에 내는 돈을 제 때 챙겨주지 않는다     | 1                  | 2                           | 3                          | 4                           |
| 7.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에 신경 써주지 않는다 | 1                  | 2                           | 3                          | 4                           |
| 8.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말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그런 말을 어느 정도 자주 들었는지 번호에 동그라미로 답해 주세요.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1. 개만 못한 것, 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망할 것, 후레자식 등의 욕을 먹었다 | 1                  | 2                           | 3                          | 4                           |
| 2. 너 죽고 나 죽자! 혹은 나가 죽어라! 혹은 너 같은건 죽어 버려야 해!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 한번도<br>없었다<br>(없다) | 드물게<br>있었다<br>(일년에<br>2-3번) | 가끔<br>있었다<br>(한달에<br>2-3번) | 자주<br>있었다<br>(일주일에<br>1-2번) |
|----------------------------------------------|--------------------|-----------------------------|----------------------------|-----------------------------|
| 3. 너만 없으면 살겠다! 너 같은 것은 죽<br>어도 싸다!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4.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5. 갖다 버리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6. 학교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라! 돈이<br>나 벌어들여!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7. 이 웬수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                         | 1                  | 2                           | 3                          | 4                           |
| 8. 꼴도 보기 싫다! 고 하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9. 엄마 도망가 버릴꺼야!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10. 너보다 못한 애는 하나도 없어! 라는<br>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11. 너는 집안의 골치덩이야! 라는 말을<br>들었다               | 1                  | 2                           | 3                          | 4                           |
| 12. 으이그, 돌머리(대가리)같으니! 라는<br>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13. 집 나가 버려!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14. 누가 잡아 가 버리지!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15. 넌 내 자식이 아니니 엄마라고 하지도<br>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    | 1                  | 2                           | 3                          | 4                           |

## 제 4 부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자기가 어느정도 그런지 잘 생각해보고 한 가지 답을 골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1.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꼭 양갓음을<br>하고 만다                | 1         | 2                | 3         | 4   |
| 2. 내 일이 잘못 되면 남을 비난하고 싶어<br>진다                 | 1         | 2                | 3         | 4   |
| 3. 나는 주로 싸움이나 전쟁에 관한 책을<br>읽는다                 | 1         | 2                | 3         | 4   |
| 4. 바보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놀려 주고<br>싶다                  | 1         | 2                | 3         | 4   |
| 5. 공격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여러 사<br>람 앞에서 비난해야 속이 시원해진다 | 1         | 2                | 3         | 4   |
| 6.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남과 다투는 일<br>이 많다                | 1         | 2                | 3         | 4   |
| 7. 조그만 일에도 시비를 잘 건다                            | 1         | 2                | 3         | 4   |
| 8. 이성(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을 보<br>면 어쩐지 끌려주고 싶어진다    | 1         | 2                | 3         | 4   |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9. 남을 끌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 1         | 2                | 3         | 4   |
| 10.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못살게 굴든가<br>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 | 1         | 2                | 3         | 4   |
| 11.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골려준<br>적이 있다             | 1         | 2                | 3         | 4   |
| 12. 겁이 많은 사람은 놀래켜 주고 싶다                       | 1         | 2                | 3         | 4   |
| 13. 치고, 부수고, 때리는 영화 보기를 좋아<br>한다              | 1         | 2                | 3         | 4   |
| 14.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 1         | 2                | 3         | 4   |
| 15. 일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곧 잘<br>비난을 퍼붓는다          | 1         | 2                | 3         | 4   |
| 16.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일은<br>꼭 복수해야 속이 풀린다      | 1         | 2                | 3         | 4   |
| 17. 다른 친구의 개인적 사정이나 감정은<br>무시해 버리는 편이다        | 1         | 2                | 3         | 4   |
| 18. 과격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운동이<br>라야 신이 난다          | 1         | 2                | 3         | 4   |
| 19.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신이<br>나서 듣는다             | 1         | 2                | 3         | 4   |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20. 거짓말을 하여 친구를 곤경에 빠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 21.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곧잘 싸움을 건다     | 1         | 2                | 3         | 4   |
| 22. 나는 친구를 위협하기도 한다           | 1         | 2                | 3         | 4   |
| 23.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찰 때가 있다       | 1         | 2                | 3         | 4   |
| 24. 나는 친구들에게 욕을 하기도 한다        | 1         | 2                | 3         | 4   |
| 25. 쉬는 시간이나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를 떠민다  | 1         | 2                | 3         | 4   |

◇ 어린이 여러분, 다음 문장을 잘 읽고, 여러분 자신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표 해 주세요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1.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어렵다 | 1         | 2                | 3         | 4   |
| 2. 난 집중을 잘 못한다                 | 1         | 2                | 3         | 4   |
| 3. 난 주의가 산만하다                  | 1         | 2                | 3         | 4   |
| 4. 일을 순서있게 잘 하는 편이 아니다         | 1         | 2                | 3         | 4   |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5. 난 공부나 일을 할 때 한 자리에 있지<br>않고 자꾸만 이리 저리 옮겨 다닌다 | 1         | 2                | 3         | 4   |
| 6. 난 자신감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7.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렵다                               | 1         | 2                | 3         | 4   |
| 8. 난 매우 침착하지 못하다                                | 1         | 2                | 3         | 4   |
| 9.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 1         | 2                | 3         | 4   |
| 10.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 11. 나는 쓸쓸한 느낌이다                                 | 1         | 2                | 3         | 4   |
| 12. 난 별 일 아닌 경우에도 설치기를 잘<br>한다                  | 1         | 2                | 3         | 4   |

◇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도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 문장을 잘 읽고 대답해 주세요.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1.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br>칭찬 받으면 약이 오른다               | 1         | 2                | 3         | 4   |
| 2.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화내지<br>않는 사람은 아마 좀 모자란 사람일 것<br>이다 | 1         | 2                | 3         | 4   |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다 |
|------------------------------------------------|-----------|------------------|-----------|-----|
| 3.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br>듣는 것을 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다  | 1         | 2                | 3         | 4   |
| 4.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br>친구를 보면 바보같은 생각이 든다  | 1         | 2                | 3         | 4   |
| 5.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갔다고 슬퍼하는<br>친구를 보면, 위로해 주고 싶다    | 1         | 2                | 3         | 4   |
| 6.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br>보면 나도 기뻐진다           | 1         | 2                | 3         | 4   |
| 7.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벌을<br>받을 때에도 난 그 친구가 불쌍하다 | 1         | 2                | 3         | 4   |
| 8. 친구가 울면, 위로해 주고 싶기 보다는<br>귀찮고 싫다             | 1         | 2                | 3         | 4   |
| 9.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친구를<br>보면, 내마음도 즐겁다         | 1         | 2                | 3         | 4   |
| 10.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br>뻐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쁘다 | 1         | 2                | 3         | 4   |
| 11. 내가 상을 못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br>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 1         | 2                | 3         | 4   |
| 12.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덩달<br>아 화가 난다           | 1         | 2                | 3         | 4   |

## 통 계 자 료

〈표 1〉 아동학대 하위 영역의 관련 변인 별 사후검증(Duncan test)

## 1) 아버지의 교육정도

## ① 신체적학대

|   |   | 고 | 중 | 대중 | 대중이상 | 국 | 무 | 학 |
|---|---|---|---|----|------|---|---|---|
| 고 | 중 |   |   |    |      |   |   |   |
| 대 | 중 |   |   |    |      |   |   |   |
| 중 | 국 |   |   |    |      |   |   |   |
| 국 | 무 |   |   |    |      |   |   |   |
| 무 | 학 |   |   |    |      |   |   |   |

\*  $P < .05$ 

## ② 언어적 학대

|   |   | 고 | 중 | 대중 | 대중이상 | 국 | 무 | 학 |
|---|---|---|---|----|------|---|---|---|
| 고 | 중 |   |   |    |      |   |   |   |
| 대 | 중 |   |   |    |      |   |   |   |
| 중 | 국 |   |   |    |      |   |   |   |
| 국 | 무 |   |   |    |      |   |   |   |
| 무 | 학 |   |   |    |      |   |   |   |

\*  $P < .05$

③ 방 인

|   | 대졸이상 | 중 | 졸 | 고 | 졸 | 국 | 졸 | 무 | 학 |
|---|------|---|---|---|---|---|---|---|---|
| 대 | 졸    | 이 | 상 |   |   |   |   |   |   |
| 중 |      | 졸 |   |   |   |   |   |   |   |
| 고 |      |   | 졸 |   |   |   |   |   |   |
| 국 |      |   |   | 졸 |   |   |   |   |   |
| 무 |      |   |   |   | 학 | * | * | * |   |

\*  $P < .05$

2) 어머니의 교육정도

① 신체적학대

|   | 중 | 졸 | 대졸이상 | 고 | 졸 | 국 | 졸 | 무 | 학 |
|---|---|---|------|---|---|---|---|---|---|
| 중 | 졸 |   |      |   |   |   |   |   |   |
| 대 | 졸 | 이 | 상    |   |   |   |   |   |   |
| 고 |   |   | 졸    |   |   |   |   |   |   |
| 국 |   |   |      | 졸 |   | * | * |   |   |
| 무 |   |   |      |   | 학 | * | * | * | * |

\*  $P < .05$

## ② 언어적학대

|   |       | 고 | 줄 | 대줄이상 | 중 | 줄 | 국 | 줄 | 무 | 학 |
|---|-------|---|---|------|---|---|---|---|---|---|
| 고 | 줄     |   |   |      |   |   |   |   |   |   |
| 대 | 줄 이 상 |   |   |      |   |   |   |   |   |   |
| 중 | 줄     |   |   |      |   |   |   |   |   |   |
| 국 | 줄     | * |   | *    |   | * |   |   |   |   |
| 무 | 학     | * |   | *    |   | * |   |   |   |   |

\*  $P < .05$ 

## ③ 방 임

|   |       | 중 | 줄 | 대줄이상 | 고 | 줄 | 국 | 줄 | 무 | 학 |
|---|-------|---|---|------|---|---|---|---|---|---|
| 중 | 줄     |   |   |      |   |   |   |   |   |   |
| 대 | 줄 이 상 |   |   |      |   |   |   |   |   |   |
| 고 | 줄     |   |   |      |   |   |   |   |   |   |
| 국 | 줄     |   |   |      |   |   |   |   |   |   |
| 무 | 학     | * |   | *    |   | * |   | * |   |   |

\*  $P < .05$

3) 아버지의 직업지위

① 신체적학대

|   | 8 | 7 | 5 | 4 | 6 | 2 | 3 | 1 |
|---|---|---|---|---|---|---|---|---|
| 8 |   |   |   |   |   |   |   |   |
| 7 |   |   |   |   |   |   |   |   |
| 5 |   |   |   |   |   |   |   |   |
| 4 |   |   |   |   |   |   |   |   |
| 6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1 |   |   |   |   |   |   |   |   |

\* P<.05

② 언어적학대

|   | 8 | 6 | 5 | 7 | 4 | 3 | 1 | 2 |
|---|---|---|---|---|---|---|---|---|
| 8 |   |   |   |   |   |   |   |   |
| 6 |   |   |   |   |   |   |   |   |
| 5 |   |   |   |   |   |   |   |   |
| 7 |   |   |   |   |   |   |   |   |
| 4 |   |   |   |   |   |   |   |   |
| 3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P<.05

## ③ 방 입

|   | 8 | 7 | 4 | 5 | 6 | 3 | 2 | 1 |
|---|---|---|---|---|---|---|---|---|
| 8 |   |   |   |   |   |   |   |   |
| 7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3 |   |   |   |   |   |   |   |   |
| 2 |   | * |   |   |   |   |   |   |
| 1 | * | * |   |   |   |   |   |   |

\*  $P < .05$ 

1 ... 무직

2 ... 단순노동

3 ... 반숙련직

4 ... 숙련직

5 ... 판매직

6 ... 사무직

7 ... 관리직

8 ... 전문직

## 4) 형제수(본인 포함)

## ① 방 입

|         | 한 | 명 | 세 | 명 | 두 | 명 | 네명이상 |
|---------|---|---|---|---|---|---|------|
| 한       |   | 명 |   |   |   |   |      |
| 세       |   | 명 |   |   |   |   |      |
| 두       |   | 명 |   |   |   |   |      |
| 네 명 이 상 |   |   | * | * | * |   |      |

\*  $P < .05$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저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